

어지럽고 힘든 삶일지라도 세상 가치관을 따라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위에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1월 7일 (토) 제 1801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팬데믹 시대, 교회 전통마저 바꾼다!

Congregational consulting, 수잔 뷰몬트 목사의 재고해야 하는 5가지 전통적 전제 소개

“등록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회중의 건강과 활력의 주요 지표 볼 수 있다.” 팬데믹은 바로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참여와 소속감 및 교인의 자격에 대한 오래된 전제들에 도전과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들을 모두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도리어 장벽을 쌓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인 지금, 사람들은 온라인상(특별히 예배나 프로그램, 또는 봉사)에서 교회와 접목점을 찾기 위해 의

미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찾고 있다. 이러한 점점들은 우리가 기존에 참여의 유형으로 인식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것들이다.

컨설턴트로, 코치로, 그리고 영적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수잔 뷰몬트(Susan Beaumont)목사는 교회 단위 대규모 회중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동성에 전문가다. 그녀는 코로나 이후 다시 생각해야 하는 5가지 전통적인 전제들을 말해준다(Five Assumptions Failing Us Now).

우리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교회)건물로 돌아와서 서로를 대면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건물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회중들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돌아올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물리적 공간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생활을 가장 오래된 분들 중 일부는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도 온라인 참여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가 건물로 되돌아오면 새롭게 형성된 온라인커뮤니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온라인상의 교인들은 2등 교인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가?

이처럼 ‘소속감’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암묵적인 전제들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최근에 합류한 새가족들을 잃거나 혹은 그들을 낮은 신분 정도로 전락시킬 위험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아래에서 나는 소속감과 참여 및 교인의 자격에 대한 5가지 견고한 기존의 전제들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지 나누고, 그것들에 도전할 것이다. 물론 이 내용 말고도 할 말은 많지만 말

이다. “지역(Geography)은 곧 소속감이 될 수 있다.”

지도를 꺼내 교회건물을 중심에 두고 반경 8km의 원을 그려 보길 바란다. 우리는 이 원 안의 지역이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고 끌어들이는 일종의 풀(pool)을 대표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20분 이상 운전해서 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렇지는 않은가?

그러나 팬데믹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었다. 건물을 떠나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대다수의 교인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들에 눈을 뜨기 시

작한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물리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목회적 토양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현장에서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인 됨’이라는 것이 가능하거나 한 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의 참여는 현장에 직접 나오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덜 중요한 것일까?”

“제자 양육은 교인이 되면 시작되는 것이다”

옛날 옛적에는 새가족 유입이 제자양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후 신앙발전과 영적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먼저 예배의 현장으로 나왔고 이후 교회교인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그 이후 진정한 소속감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일단 교인으로 등록한 이후에는 교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내적으로는 믿음을 다지고 외적으로는 봉사와 리더십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여정이 거꾸로 작동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사람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 교회와의 접점을 찾고 그 봉사를 통해 소속감을 느낀다.

교인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먼저 소속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인으로 등록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다시 고개 드는 이슬람극단주의 테러

BBC, 프랑스 성당서포 ‘참수’ 사건..마크롱 ‘이슬람 테러공격’ 보도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지난 29일 무슬림 남성이 흉기 테러를 저질러 최소 3명이 숨졌다. 프랑스 대테러경찰청은 용의자가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에서 이민자 보트를 타고 며칠 전 프랑스에 건너온 21세 튀니지 청년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는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쓴 총에 맞아 쓰러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목격자들은 희생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사실상 참수”됐다고 증언했다(Notre-Dame attack: Farid Ikken appears in Paris court).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이슬람 테러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교회와 학교 등 공공장소를 지키기 위해 기존 3000명이던 군 병력을 7000명까지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국가 경계수위 또한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

이번 테러 공격은 파리 근교의 한 중학교 교사가 참수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발생해 프랑스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교사 사뮈엘 파티는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수업을 하면서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한 잡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

do)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길거리에서 참수당한 채 발견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만화를 그릴 권리와 정부가 극단주의 이슬람교도들을 진압할 권리를 옹호했고, 이는 터키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니스 테러의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기 전에 반복적으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대테러검찰에 수사 지휘를 맡기며, 국가 경계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최혜근 목사 3면



푸른초장 주원열 목사 4면



팬데믹 시대의 선교... 김영찬 목사 5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반서적/백스펠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Diagram showing the 'Hisfinger' logo and its components: VOL.1, stars, moon, hisfinger. Below are four t-shirt designs: green, black, white, and red, each featuring the logo.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발행인 칼럼

선택의 수용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또 무엇이신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택이다. 자고 나면, 아니 잠자리에서조차도 물밑듯 찾아오는 선택 또 선택의 일들에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렵다. 그런가하면 어떤 선택을 통해 나와 가족과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때때로 보면서 선택의 큰 영향력에 매료되곤 한다. 인생은 BCD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B는 Birth다. C는 Choice이다. 그리고 D는 Death이다. 사람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의 연속이 있다는 말이다. 이 BCD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도 포함된다.

서른일곱 살에 미국에 가리라 선택했다. 그 전에 미국에 갈까 말까하는 기로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런데 오늘에 되돌아보니 그때 그 선택의 결과는 나와 나의 가족에게 엄청난 것이었다. 오늘날 나의 자녀들의 삶은 그 때의 선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 결과를 부인할 수도 없고 선택 이전으로 되돌이킬 수도 없다. 모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이다. 선택의 연속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1월 3일, 오랜 선거운동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선택했다.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신중에 신중을 기울였을 것이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선택된 그 지도자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다수결 선택의 수용은 더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할 일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을 되돌아키려는 것이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라도 소극적이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한 결과의 책임을 나도 함께 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 있다. 두려움이나 담대함이나의 선택이다. 아직 그 끝을 모를 팬데믹 앞에서이다. 이 모든 상황이 팬데믹에게 달려있다면 두려움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두려움의 선택에도 그 결과가 있고 담대함의 선택에도 그 결과가 있다. 모세가 죽은 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다. 만일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는 참담했을 것이고 그 참담함의 늪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우적댔을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그 지금 보다 더 참담할 결과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두려움을 택하겠는가.

진짜 중요한 선택이 있다. 감사나 불평이나의 선택이다. 선택에 따른 결과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크다. 상황에 따라 가사를 선택하지 말자.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자. 감사의 계절에 다음과 같은 “감사송”을 우리도 불러보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Q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틀란틱, ‘유시종교운동’으로 성장한 QAnon 시작과 성장과정/위험성 경고

“당신이 지지자라면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미국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기의 접시에서 남은 음식을 먹는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헤드폰을 쓴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회계사, 치과 의사, 부엌에서 컵케이크를 장식하는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주의 교회와 제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추적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외모만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상관없어요.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는 작은 조작자들이 행성의 줄을 당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학대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과 심층국가(deep State)의 비서관들과 협력해 만들어낸 그들의 허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만이 당신과 저주 받고 황폐화 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역병이 지구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선과 악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가오는 대각성(Great Awakening)을 갈망합니다. 따라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무지한 자의 경멸로부터 귀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싸울 준비가 돼있

어야 합니다. Q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세력이 신뢰하는 정체불명의 인물 큐(Q)를 중심으로 한 음모론 집단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지지 집회에서 Q를 디자인한 셔츠를 입고 아들과 함께 나온 40대 남자는 말했다. “주류 미디어의 90%는 악의 비밀결사 중 일부다. 트럼프는 구세주로 뻘뻘했다. 세계를 구할 것이다.” Q는 2017년부터 사이버(4Chan에 등장해 가짜 뉴스를 전하고, 이를 유튜브나 트윗을 통해 확대)에 등장해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정체불명의 투고자인데, 그의 글을 지지하고 해석하는 집단 ‘Q아논’(아논anon은 익명을 뜻하는 anonymous에서 따왔다)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만든 수많은 사이트 중 하나에만 월 800만 이상이 찾는다. 그들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만 13만 개 이상으로, “타입”이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계의 25인’에 Q를 낳을 정도로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FBI는 무서운 세력 확대에 국내 테러 위협으로 선언하고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주의자들까지도 이에 동조/추종하고 있어, ‘이틀란틱’은 Q가 전하는 음모론이 이제는 위험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The Prophecies of Q: American conspiracy theories are entering a dangerous new phase).

Q는 ‘딥스테이트’(deep state) 음모론으로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큐아논은 지난 2016년 한 신실한 한 남성(Edgar Maddison Welch)이 총을 들고 워싱턴 DC의 피자가게(Comet Ping Pong)를 찾아 아동 성매매 음모론을 조사하겠다고 한데서 시작된다. 이후 이듬해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들은 세력을 키웠다. 민주당의 최고위층과 허리우드의 유명인사 등 글로벌 엘리트들로



으로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큐아논 지지자는 자신의 친형이 도박빔이라며 잠금으로 풀려 살해하거나 산에 방화를 일으켜 12채의 집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한 무장 시민이 잠강차를 몰고 콜로라도 강의 후버댐에서

Q: 2017년 사이버에 등장한 트럼프 지지 정체불명 투고자들 ‘딥스테이트’(deep state) 음모론으로 추종자들 모아

구성된 마녀집단이 아이들을 고문하고 성관계를 위해 아이들을 속이며 심지어 식인까지 하고 있다는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시작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리에 이들을 몰리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허리우드와 언론, 기업, 정치에서 수만 명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바로 ‘나라의 심부’ 또는 ‘나라 안의 나라’라는 뜻의 딥스테이트(deep state)는 정부 안에 깊숙이 뿌리박힌, 강력하지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세력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아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밀스런 집단이 있다는 게 딥스테이트 음모론이다.

결국 ‘큐’는 트럼프 행정부를 정부, 산업, 언론 등을 접수한 ‘반 미국적’ 무리에 맞서 싸우는 정보자로 묘사한다. 이에 열광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큐’의 메시지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음모론 확산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음모론이 단순히 온라인 상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큐’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중이라며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공무에 사용한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 대한 법무부 감찰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서류는 전날 공개됐는데도 ‘큐’의 추종자들은 다른 감찰서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뜻 보아도 어찌구무어 보이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큐아논은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에만 14명의 큐아논 지지자가 의회에 출마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with various services listed.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office locations in L.A. and N.Y.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a scenic campus image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study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팬데믹 시대, 교회 전통마저 바꾼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제자양육의 일환으로 리더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사실 교인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부됐었던 것이 전통적인 절차였다. 대다수의 교회가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제자양육 과정수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전통적 전통들을 물어버려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제자도를 전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여성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공간 혹은 현장 모임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소속감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예배출석이 성도의 참여도에 있어 가장 좋은 지표다"

이것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신빙성이 없었던 전제다. 하지만 출석부를 중시하고 수치에 집착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다.
누군가 회중의 규모를 물으면, 우리는 제적인원이나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평균출석률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참여하는 성도들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지표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열심이 있는 성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적은 빈도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회중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예배나 강좌에 얼마나 많은 장치가 로그인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한 그 현장모니터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여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가상(온라인) 세계에서 진정한 참여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추적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참여수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한 참여도는 그들의 제자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대면 참여가 온라인 참여보다 더 확실하다."
"우리는 언제쯤 진짜 예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리적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상(온라인) 예배가 진짜가 아니라는 전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확실히,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우리를 찾는 새로운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전제에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현재 가상공간에서 교류하는 것과 그러한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제적 공간인 자신들의 집이라는 곳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가 건물로 다시 복귀할 때 함께 예배하고 배우며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건물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가상경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일부 예배는 사전에 녹화된다. 또 어떤 영상은 라디오로 먼저 송출됨과 동시에 녹화되고 이후에 편의에 따라 활용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도자/설교자/교사의 시공간과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예배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동시적인 참여를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가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개별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참여도가 낮은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진정한 소속감은 교회"전체를 품어야 가능하다."

"Q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2면에서 계속)
그 정도로 Q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작년에 '큐' 추종자들을 위한 앱 '큐드롭스'는 지난 4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내려 받은 앱 10위 안에 들었고, 3월에 출범한 큐어넌닷컴(Qanon.pub) 사이트는 한 달간 700만명이 방문했다. 미 언론은 큐어넌은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친트럼프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ABC뉴스는 지난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큐어넌과 관련된 페이스북 그룹은 22만 이상으로 늘었는데, 올 3월부터 현재까지는 최소 170만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큐어넌과 관련된 게시물은 트위터에서 71%, 페이스북에서 6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BI는 이를 위협으로 감지, 큐어넌과 같은 음모론 운동을 잠재적인 국내 테러 위협이라고 선언하고 전투터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결국 인터넷의 힘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큐어넌사태를 통해 비로소 절감하게 된다. 그 부정적인 힘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된 현실의 모습을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적 통치 능력을 심각하게 파괴 또는 훼손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은 또한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 결코 꿈꾸지 못했던 규모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공유 현실의 왜곡은 AR-15 소총을 든 에드가 M. 웰치가 피자 가게를 침범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전 국무장관의 암살을 다채롭게 상상하는 곳으로 온라인 포럼을 제공한다. 그것은 숨어 있는 악한 정치 엘리트들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날 대각성의 약속을 제공한다.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큐어넌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일 수 있다는 추측과 함께 채팅사이트를 활기차게 만든다. 이중 어느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다.

큐어넌은 음모이론에 대한 현대 미국의 민감성과 이에 대한 열정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미 음모를 좋아하는 채팅방 사람들의 느슨한 모음 이상이다. 이성, 객관성 및 기타 계몽주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로 연합된 운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목도하고 있다. 이 그룹은 편집증을 이용해 열렬한 희망과 같은 소속감을 갖는다. 종말에 대한 고대의 집착에 생명을 불어 넣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큐어넌을 보는 것은 음모 이론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큐어넌은 수천 년에 걸친 종말론적 사고의 전통을 이어간다. 소외와 표류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노만 콘(Norman Cohn)은 그의 고전적인 1957년 저서(The Pursuit of the Millennium)에서, 인류 역사에서 목시적 사고의 출현을 조사했다.
그는 한 가지 공통된 조건을 발견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바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11세기 십자군전쟁 당시 유럽, 14세기 흑사병, 16세기 라인계곡, 19세기 윌리엄 밀러의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1세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칠일재림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는 미국 토착종교 운동으로 번성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큐어넌이 토착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아틀란틱'은 강력하게 경고한다. Q는 이미 그 두 교단이 시작된 초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Q드롭을 기초 텍스트의 분할로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Q-송배그림의 발전을 통해 Q가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것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의 표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Q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신은 항상 신비다. Q를 추종하는 제자들의 사이에서 믿음은 절대적이다. 그들은 대각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만큼 기다릴 것이다.

시론

신앙인과 권력



최해근 목사
(동고메리교회)

드디어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여야 후보의 지지도가 비슷한 정도를 넘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앞두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더러 받습니다. 쉽지 않는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하기에 이 질문에 대한 강한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제비뽑기와 선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그냥 여러 후보 중에서 추첨을 통해 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후에 소개되는 가롯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에 제비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중요시하였던 점은 제비뽑기 자체가 아니라 제비뽑기 대상의 후보가 될 사람들의 기준을 엄격하고 빠르게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진지하게 선정한 후에 그렇게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비를 뽑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는 그냥 운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사실은 제비뽑기처럼 우리가 선택할 후보자의 자질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후보자 자질과 선거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발표하는 공약은 교회 지도자가 고백하는 신앙과는 출발점이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나온 진리에 근거하여 지도자를 뽑지만 정치는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들이 원하고 자신의 당이 원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어떤 후보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약으로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연방 혹은 주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에게 완벽한 성경적인 공약을 요구하게 되면 단 한 사람의 후보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지도자들에게 성경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더 신실하게 따르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려는 시도가 투표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섞인 정치인의 세계에서 성경이 교본은 아니지만 투표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후보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택하는 것이 옳은 투표방식입니다. 후보자가 주장하는 선거공약과 후보자가 살아온 삶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정리한 후 투표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국가의 법을 들고서, 이번 선거를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시기를...

thechoi82@yahoo.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빌라델비아 장로교회(New York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소속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목양하실 담임목회자를 청빙합니다.

1. 지원 자격

-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대원(M. Div.)을 졸업하신 분
- 2) 목사안수 받으신 후 목회 경력(담임/ 부담임)이 있으신 분
- 3)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4)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5)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씩)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4) 추천서(목회자 2명)
- 5) 최근 설교 2편(동영상 또는 음성)
- 6)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소명) 및 가족 소개서
- 7)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3. 제출방법

- 1) E-mail : sang78us@yahoo.com
- 2) 우편: 2 Beacon Hi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영삼 목사님

4. 제출마감

- 1) **2020년 12월 31일까지**
-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선정된 분께는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크리스천 라이프는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가운동이나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산보가 아닙니다. 이 경주의 목적은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에 군더더기를 벗어버리세요. 경주할 때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땀 수 없습니다. 체중조절도 필수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을 벗어 버리라"란 말씀은 불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뜻

보다도 불필요한 것과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취미활동, 오락, 인간관계, 친구, TV, 카톡, 인터넷 등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로 불신앙의 죄를 벗어 버리세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경주를 완주하려면 벗어야 할 '억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부부가 서로 불신하면 결혼생활은 끝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불신하면 교회는 갈라집니다. 부모를 불신하는 자식은 불효자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영적 고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끝까지 인내하세요. 마라톤에서 최고의 테스트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마라톤의

출발점에는 관중이 많습니다. 그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쯤 달리면 더 이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호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야 합니다.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넷째로 서로 경쟁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 경주의 코스는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성격, 재능, 은사, 능력, 환경에 맞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는 나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각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주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경쟁심, 승부욕, 시기과 질투, 자아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쉽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세요. 고대 그리스 경기에는 승리의 월계관이 결승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경주자들은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결승점을 향해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결승점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잘 뛰는 것보다 끝까지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현재의 고난을 장차 미래에 받을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 불수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히12:2). 예수님께서 친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의 챔피언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고 응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를 벗어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푸/른/초/장

주원열 목사

(로드아일랜드중앙교회)



민수기 11장은 '원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은 '비방'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합니다(약3:5-6).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약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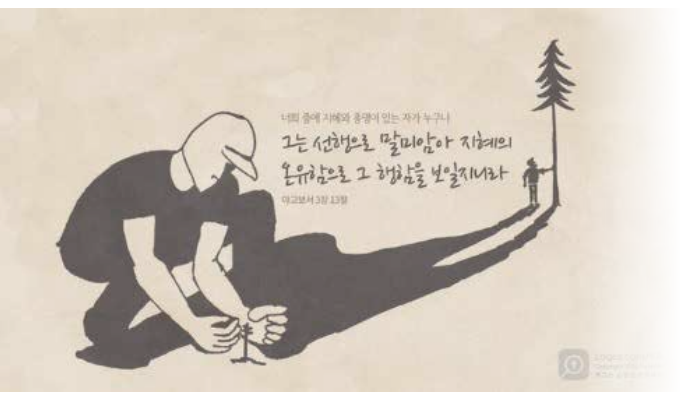
침묵수행을 하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일년에 한 번 생일날에만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수도원장 앞에서 딱 두 마디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말해야 하겠지요. 되어서 젊은 수도사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수도원장이 묻습니다. "앤드류, 우리 수도원에 들어온 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 자네의 생일이니 두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할 말이 있는가?" 앤드류 수도사는 "bad food"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수도원장은 앤드류의 말을 파일에 적어서 보관하였습니다. 일년이 지나서 앤드류는 다시 수도원장 방의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bed hard"라고 말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 말을 파일에 적어서 보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일을 맞아서 수도원장 방에 왔을 때 앤드류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work boring"이라고 내뱉었습니다. "이제 끝이네" 수도원장은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이제 수도원을 떠나기를 바라네." 앤드류는 금언의 서약을 깨면서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 하였습니까?" "왜냐고? 이유가 너무 명백하지 않은가? 자네는 지난 3년 동안 불평밖에 한 것이 없네."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에 앉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 글자로 말하라고 하면 무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생, 불행, 후회, 허사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비방을 받은 표면상의

수도사를 시험하였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하여 보았습니다. 이 수도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금덩이를 보여주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이 수도사는 당당히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줄개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에 왕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왕마귀가 말하기



이유는 여자문제였습니다. 모세가 구스(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하니,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 동기는 시기(env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모세의 여자문제는 일종의 명분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인은 시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시므로 모세는 우리보다 잘난 것이 없다;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라, 우리보다 못하다; 그런데 왜 나이도 어린 동생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느냐?"

오스카 와일드가 쓴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 리비아 사막을 걸어가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줄개들이 이

를 '한심한 놈들,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하고 나섰습니다. 노련한 왕마귀는 수도사의 귀에 딱 한 마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얼굴빛이 변하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막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궁금한 줄개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어라고 하셨기에 저 수도사가 성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였습니까? 왕마귀가 대답합니다. "뭘 별 짓 아니고, 네 동생이 알레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지" 그 한 마디에 그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암은 여

장부였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 후에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온 이스라엘 여인들의 축제를 리드하였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에 한 명 밖에 없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모세보다 말도 더 잘하였습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사양하자(출4:10),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출15:14-16).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뭐 그리 대단하냐, 그도 별 수 없다, 우리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야고 비방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비방에 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중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하나님이 직접 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 받고 정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예수님 앞에 물려온 군중들에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8:7).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군중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정죄의 돌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1:29).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나타내 줍니다. 더욱이 자기를 더욱 낮추시어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정한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신을 모독하고 우롱하며 비웃는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이 참으로 온유한 것인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은 손해만 보아야 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며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영적인 땅을 차지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wychu2000@yahoo.com

온유의 승리

민수기 12장 1-16절

하여 모세가 무어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묵묵히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무어냐는 말에 대해서는, 모세와 너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그는 여호와와 형상을 본다"(8절). 또한 모세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7절).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8절).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원수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죄인이고, 무익한 종이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맞춤 형으로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만드신 환경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경이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환경은 나의 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씨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불평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착했고, 곧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체포됐다고 밝혔다.

니스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 사람들이 가득한 산책로에 대형 트럭이 돌진, 86명이 숨지고 430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했던 곳이다.

미국, 터키, 이집트, 카타르, 레바논, 유럽 이웃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

다시 고개 드는 이슬람극단주의 테러

(1면에서 계속)

장프랑수아 리카르 대테러 전담 경찰은 용의자가 코란과 칼 세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의자가 남겨둔 가방, 그리고 그 옆에 사용되지 않은 칼 두 자루 역시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21세의 브라힘 아위사위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니스를 방문한 뒤 "우리가 다시 공격받는다면 그것은 자유라는 우리의 가치 때문"이라며 "오늘 다시 한 번 확실히 말하겠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한편 이날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각각 다른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

프랑스 남부 아비뇽 근처 몽파베란 도시에서 권총으로 경찰을 위협하던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졌다.

사우디 수도 제다의 프랑스 영사관 앞에서는 경호원이 공격을 받아 후송되기도 했다. 용의자는

체포됐다. 피해자 3명은 모두 성당 내에서 목요일 아침 첫 미사를 지내기 직전 테러 공격을 당했다. 이 중 60세 여성 피해자 1명은 "사실상 참수" 당했으며, 다른 55세 남성 피해자 1명은 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55세 남성 피해자는 성당에서 44세의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후, 성당 인근

카페로 도망쳤지만 숨졌다.

한 목격자는 공격 당시 도시에 설계된 특별보호시스템 알람을 작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성당 근처에 사는 클로이는 BBC에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창문 밖으로 정말 많은 경찰이 왔고, 많은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테러감찰청은 경찰관 4명이 오전 8시 57분쯤 사건 현장에 도

믿음과 행위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와 같다. 본질이 현상을 드러내듯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며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지 못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한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무언가 다른 어떤 추가될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표현이다. 사과열매를 맺는 나무의 본질일 뿐 안전가 그 나무는 사과열매를 맺을 것이다. 붉은 장미 잎을 말려 따뜻한 물에 넣으면 붉은 물감이 번져 나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부족해서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가 가진 믿음이 정확하다면 그의 말과 행위와 삶의 양식에는 당연한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쉽지 않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특별히 믿음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여겨졌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혹은 목회자까지 과연 그 믿음을 행위로서 얼마나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슬라한 느낌이 찾아온다. 그저 매일 매일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다.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공한 조각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나의 참성도의 본질이 드러나는 빛갈이 아니겠는가?

신앙고백, 감정과 의지

참 신앙의 고백은 지적수용뿐 아니라, 두려운 감정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보면 대부분이 지적수용에 그치는 것을 본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도 가지지 않는 것을 본다. 예수님의 등장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신들을 떨하러 왔느냐며 떨고 있던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저 주의 일꾼이요 노예와 같은 존재임에도, 오늘날은 노사관계처럼 하나님과 맞장을 뜨려는 듯 두렵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본다. 퇴락한 신앙의 소견이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대포를 교회에 쏘아서 교회를 해쳐 영성에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영터리 같은 일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이 비추기전에는 어둠속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자, 내가 있던 곳이 어둠이었으며 거친 먼지가 많았음을 보게 알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국 자신의 추한 모습이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에서 믿음의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변화의 태도와 자세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표현한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와 사자를 만난 후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두려움을 말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한다. 신약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한다. 공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의 죄된 모습이 절망하고 겸비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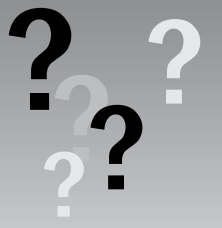
부터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로즈버그의 옴프콰커뮤니티 칼리지(UCC)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다.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죽고 7명이 다쳤다. 총기 난사를 벌인 이는 그곳 주민 크리스 하퍼 머서로 밝혀졌다. 머서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사망했다. 그는 총격 당시 권총 3자루와 장총 1자루 등 모두 4개의 무기를 소지하고 학교로 들어갔다.

글쓰기 수업을 받던 교실로 들어간 용의자는 다른 사람들을 옆드리게 한 후 차례로 일으켜 세워 '무슨 종교를 믿느냐'고 물은 뒤,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광경을 목도한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총을 든 남성이 교실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만 일어나'라고 한 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은 뒤에 그렇다면 1초 후에 너의 신과 만나게 될 것 (because you are Christian, you are going to see God in just about one second)이라며 머리에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크리스천이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리나 다른 곳에 총을 쏘았는데,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생명과 바꾸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 마치 중고등학교 수련회에서 6.25전쟁 당시 공산당이 예수님의 사신을 밟으면 살려주겠다는 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매우 치열합니다.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미국의 미래가 달린 두 정당간의 이념과 방향성에 대한 사상적인 전쟁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목사님의 성경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잘 지적하셨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제가 글을 쓰는 시점에서).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기독교 장로교인인 트럼프냐? 아니면 성경보다 인간 중심의 가치를 선택하는 바이든이냐? 미국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투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치열한 영적 대결 (spiritual confrontation)입니다. 1)생명인 태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명권 우선인 Pro-life냐? 낙태는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선택권 우선인 Pro-choice냐? 2)성경대로 전통적인 1남1녀의 결혼이냐?(Traditional Marriage) 동성결혼을 통한 비윤리적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비성경적, 비윤리적 결혼 관이냐? 3)신앙의 자유우선 보호냐? 아니면 LGBT의 권리와 특정 인권을 우선시 하느냐?

4)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우선, 전통적 기독교 유산 존중하느냐? 아니면 정부와 하나님은 별개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겠다냐. 5)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이슬람 반대냐? 아니면 이슬람은 미국의 친구이고 중동인 입국환영, 이슬람을 미국 공립학교에서 적극 가르치겠다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와 반 기독교의 신좌파(New left, Neo Maxism)와의 치열한 영적 대결입니다.

기독교와 신좌파인 네오막시즘은 미국뿐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한국과 세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이라 불리는 신좌파는 소위 "인권과 평화, 정의"의 이름을 내걸면서 그들이 말하는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얽매는 모든 질서와 규제를 거부하고 인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최대한 허락하며 남녀구별을 억압으로 폐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하며 결혼제도 정부, 교회까지도 압박의 도구로 보고 거부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들끓는 극좌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혁명의 전위부대(avant garde)로 동원하고 성정치화(Sex politically)하여 기독교의 가치와 가족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심각하게 해체하고 네오막시즘의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반기독교적 네오막시즘 선봉에 오바마 있어

최한우 교수가 쓴 "네오마르크스주의 비판"이란 글을 보면 이 네오막시즘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간을 억압하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선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통적인 지배권위가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첫째가 기독교 해체를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은 기독교 해체를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젠더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주장하며 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나 선택한다면서 성 개념을 해체하고 프랑스와 스웨덴은 부모와 자식도 합의하면 근친상간의 상관계도 가능하다고 하는 악마적이고 인륜 파괴적인 사상운동인 것입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의 계보에는 1)서구문명을 타락케 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등장하도록 주장한 윌리엄 쉘링 2)케틀리예수회에서 교육받고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크 라캉 3)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차별금지, 혐오범죄 규정의 법 기반을 만든 질 들뢰즈 4)하나님을 부인하는 교육을 10살 전에 아이들에게 세뇌할 것을 말하는 버트란드 러셀 5)이탈리아의 기독교 해체를 목표로 하고 이탈리아 공산당을 만든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 6)루시퍼와 니르뭇을 찬양한 유대인 사울 알린스키 7)사울 알린스키의 제자요 동성애 전도사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8)인간을 남성여성 구분하지 말고 사람이라 하고 퀴어이론(Queer Theory)을 만들어낸 페미니스트 주디 버틀러 9)공산주의자요 성적자유가 국가경제발전에도움된다는 정치적 운동을 한 빌헬름 라이히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네오막시즘의 선봉에 오바마가 서있고 바이든은 그의 사상에 물든 자입니다.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은 이 네오막시즘과 선봉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오막시즘에 장악된 EU 해체 주장을 하고 UN도 여기에 많이 몰려 트럼프는 UN 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몰상식하다는 트럼프의 행동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치의 수호자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이기는 생명같은 믿음

-본질과 현상, 두려움과 담대함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가려 주셔서 오직 은혜와 감사, 오직 기쁨의 길로만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다. 특별히 목회 가운데 믿음이 당면적으로 요청되는 중직자의 신분과 그 신분으로 인한 상처를 감내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구하게 될 따름이다.

신앙의 주장과 믿음의 행동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주장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함을 의미하고 있다. 소박한 예를 들어보자. 형제를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를 돕고 싶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결국 돕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다고 한다. 그래서 변명한다. '그 사람 참 안 됐다.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의 신앙의 주장일 따름이다. 결국은 돕지 않았고, 형제의 연약함을 측은히 여겨주려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거스르고 불순종했음을 고백한 것이다.

성도들을 만나 평안히 가라는 의미의 'shalom'을 말하지만 아주 예의바른 인사로, 자신은 그 형제에 당한 상황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때 코에 손을 대고 숨 쉬는 여부를 확인한다. 그것 외에 더 추가할 것이 있는가? 없다. 그것으로 충분히 그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

그가 한국교회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존재라고 할 때, 정말 생각을 혼돈케 한다. 종말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께서, 과연 주의 성전을 대포를 쏘아서 해체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하신 그 모임은 그저 단순히 '모여지는 것(just gathering)', 온라인에서 모이지 않나? 라고 말하는 그런 모임은 현상을 말함이 아니라 '모임(meeting)'이라는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이곳은 성전이다. 그곳에 어떻게 대포를 쏠 수가 있을까? 인문학과 성경적인 추리를 덧붙여서 유려한 영상의 분위기를 가지고 설득하려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고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듣고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자신에 관한 지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두 잘난 사람들이었다. 빛

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

태도의 변화가 참 신앙의 증거이며 현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이 소중한 날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렵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소리 높일 일을 만들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뿐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행동, 세상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가져온다. 인간관계에서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지식과 감정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행위는 결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신앙의 고백, 생명

예전에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 대학에서 10명이 숨진 총격사건이 최근에 다시 방송을 타면서 기억을 소환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듯이 포틀랜드로

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림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은혜스러운 수련회를 진행하려던 선배를 무색하게 만든 기억이 떠올랐다. 실은 사진이나 그림이라도 예수님의 얼굴, 진본여부를 확인할 길 없지만, 그렇다고 그 얼굴 사진을 밟을 용기도 예나 지금이나 부재하다. 그러나 분명, 이런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엄숙해지면서 조금씩 자신과 주변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된다.

과연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인가? 진자 자신의 생명과 바꿀만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더불어, 그런 예수를 고백하도록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는가? 너무 기호에 맞는 악세사리를 선택하듯 성도들의 선택에 공감협력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한 반성을 하게 된다. 과연 입술로 말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그 신앙이 모든 눈거를 떠나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만큼 소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마치 불을 통과한 믿음처럼 너무 일찍 자신이 가진 신앙의 내용을 토해내는 것을 본다. 목사로서 괴로운 일이다. 세상을 담대히 이길만한 좋은 것을 먹이지 못함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럽고 아쉽고 괴로운 마음이다. 오죽하면 '나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믿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을까?

davidnjo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소말리아의 주바 소말리(JUBA SOMALI)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랍인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기원한다고 말한다. 황량한 아라비아사막에서 독특한 부족 문화가 발전했다. 아랍세계는 그 최초 발상지로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수십만의 주바소말리 아랍인들이 동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 소말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주바소말리인들은 Af-Maay라고 불리어지는 아랍 방언을 말한다. 이슬람과의 오랜 유대관계로 인해 그들은 거의 100%가 이슬람교도다. 대부분의 주바소말리족은



(2000년 현재 757,900명) Wabi Shebele 지류 주변의 비옥한 지대인 소말리아의 서부 국경선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다른 275,000명은 에티오피아와의 인접지역에 거주한다. 주바소말리족은 소말리아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아랍인 집단중 하나다. 대부분은 촌락에 살지만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동부아프리카에는 2가지의 전형적인 거주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대규모의 밀집된 촌락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형태는 수로를 따라 빈틈없이 뻗어있는 인접해 이어져 있는 임시가옥들로 구성된다.

삶의 모습

주바소말리족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일부지역은 농경을 하며 그 지역의 다른 아랍인들처럼 주바소말리 농부들은 밀, 야채 그리고 커피를 재배한다. 또 메론, 대추야자, 망고 그리고 석류 등도 경작한다. 촌락주민들은 작은 우리에 사육하는 영내의 동물(가축)들로부터 매일 젖(우유)과 알(달걀)을 공급받는다. 주바소말리족 대부분은 촌락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그들의 사회는 다른 동부아프리카 아랍인들보다 다소 구조화되었다. 촌락 가옥의 한 형태는 진흙벽돌로 만들어지는데 평평한 지붕과 내실이 하나 있다. 일반적으로 가옥들은 종려야자 잎 지붕이 있는데 그것을 넓게 퍼서 돌출현관(베란다)을 만든다.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 집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소유하는데 그 집들은 진흙 또는

가시덤불로 된 벽으로 둘러싸여진다. '수단형' 집으로 불리는 이 집은 둥근 방이 하나 있는 임시가옥으로 원뿔모양의 종려야자 잎 지붕이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집의 기초가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종려야자 잎으로 만들어진다. '수단형' 집은 특히 나일강 지대를 따라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주바소말리족은 씨족들 간에만 결혼하는 족내혼 풍습이 있으며 일부일처제다. 과거에는 혼사가 미리 정해졌었지만 현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반려자를 선택하도록 허용된다. 아이들은 가족의 가장 큰 자산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부계제에 의한 재산상속을 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은 딸보다 아들에게 더욱 많이 물려진다. 젊은 딸들의 가치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가족을 계속시키는 능력에 있다. 주바소말리족에게 사회적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부분 동아프리카 아랍인들처럼 매일 커피타임의 전통을 공유한다. 목재가 비싸고 다소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물의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슬람교 교리에도 불구하고 주바소말리족은 다른 부류의 아랍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의생활은 그 부류를 구분하는 눈에 띄는 요소 중 하나이다. 여성들은 그들이 시내에 나갈 때나 집에서 베일을 쓴다. 소년들은 성년에 이르면 다른 형태의 모자를 쓰는 것이 허락된다.

신앙

이슬람교도로서 주바소말리족은 예언자 모하멧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들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그들의 성서인 코란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종교(이슬람교)는 믿음의 5가지 교리

또는 '기둥'에 기초한 행함의 종교이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교도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 셋째,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넷째, 라마단(람잔)을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생애에 적어도 한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말리아의 주바소말리족은 거의 모두 이슬람교도다. 현재 그들 가운데 기독교신자는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번역된 성경전서도 그들의 언어로 방영되는 기독교방송도 없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복음화는 아랍의 본질적 생활방식과 종교적 신념체계에 당연히 도전받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꺾임받은 "여론조사 믿지 마, 트럼프 이겨"

여론조사기관 꺾임 고문이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인 크리스토프스 마크리디스와 오하이오주 우드카운티의 공화당 의장 조너선 야쿠보스키가 지난 27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여론조사를 믿지 마라.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고, 그것도 크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들이 트럼프의 압승을 주장하는 근거는 우선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다. 여론조사에서 던지는 질문 자체에 이미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 있어 응답자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투표할 것인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어 응답자들이 자기 생각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 카토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미국민의 3분의 2 정도는 정치적 환경이 너무 가혹해 정치에 대해 진실한 얘기를 하기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신규 유권자 등록이 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지난 5월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 중 민주당 지지자는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80만3427명 더 많았지만 10월 기준 그 격차가 70만85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대선 이후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 중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7배 많다는 점도 덧붙였다. 결정적으 매 높은 트럼프 열성 지지층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더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또 "특정 시점에는 특정 뉴스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합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차남 헨터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초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美대법 '우편투표 기한연장' 판결 주마다 달라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우편투표 개표기한 연장을 허가했다. 전날에는 또다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불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인정한 주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은 대선 당일 이후 사흘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개표해 집계해 반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우편투표 비중이 높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에 비해 우편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주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판결 이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 19일 기각됐다. 공화당은 지난 23일 재차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주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연방대법원이 직접 심리해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대선 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같은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편투표 점수 및 개표 기한을 9일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당국은 앞서 대선 당일 전 발송된 우편투표일 경우 대선 후 9일 내에만 도착하면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반발, 연방대법원에 기한연장을 막아달라며 긴급 가처분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은 5대 3으로 이를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바이든 측에만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7일에는 또다른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위스콘신주에서 우편투표 점수 및 개표 기한을 6일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연방 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시키자 이에 반발,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민주당 요청을 기각하면서 결국 위스콘신에서는 대선 당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까지만 개표 대상으로 제한되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경합주에 따라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주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오랜 전통이 반영된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위스콘신의 경우) 연방법원이 주법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철에 개입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주 내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위스콘신의 경우 연방법원이 선거 관련 주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비슷한 사례이나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 언론들은 "연방법원이 선거에 임박해 선거 규정을 수정하는 등 주별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장로교 떠나 초교파로"

크리스챤너티투데이에 "미국장로교(PCUSA)에서 지난 4년 동안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단을 떠났다. 이제 한 명 더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이후 재임시 교단을 바꾼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종교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장로교인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년 동안 자신을 장로교인이라고 불렀지만 더 이상은 아니며 자신을 교단에 속하지 않은 초교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노먼 빈센트 필의 교회에 출석했고, 그의 저서인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찬양했다. 또한 여러 번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예배를 위해 성공회 교회에 참석했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저명한 복음주의 지지자에 의해 "아기 기독교인"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으로 들어간 후 그는 여러 다른 교회를 방문했는데, 대부분 미국장로교 같은 주류교단이 아닌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 함께 기도를 했고, 화이트 케인과 같은 영적 상담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플로리다에 있는 화이트 케인의 교회도 초교파다.

공공 종교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 40%는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화당원으로 투표한 백인 복음주의자들 59%는 트럼프가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면에서 트럼프의 주류교단과의 단절 결정은 문화적 추세 일부다.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미국장로교, 연합감리교, 성공회 같은 주류교단을 떠났다. 1975년에는 거의 1/3의 미국인이 주류교단에 속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 이상으로 떨어졌다. 특히 트럼프가 떠난 미국장로교는 1984년 310만 회원에서 현재 130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4년간 회원 수는 매년 평균 4.5% 감소했다.

종교적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흔하다. 2010년, 2012년 및 2014년에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연구에서 기독교인 6명 중 1명은 지난 4년 동안 종교적 정체성을 바꿨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떠났다. 기독교 내에서도 16%가 교단을 변경했다. 그 가운데 약 20%는 장로교를 떠나 초교파적이 됐다.

미 일반인과 복음주의자들의 영적온도 차이

라이프웨이 리서치와 리고너 미니스트리는 2년 마다 설문조사(State of Theology)를 통해 미국인들의 신학적인 온도를 측정한다. 2020 설문 조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미국에서 널리 퍼진 혼란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 도구를 통해 일반 미국인과 복음주의 미국인들의 차이를 찾아보았다.

그러면 누가 복음주의자인가?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성경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자 스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가져 받는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다음은 각 질문별로 복음주의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며, 괄호 안은 일반인에 대한 비율이다. 응답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배열했다.

복음주의자들이 압도적인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 100%(일반인 79%), 성경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최고의 권위 100%(62%), 비신자에게 복음전도가 필요 100%(5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희생 100%(65%),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가져 받는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가져 받는다 100%(60%) 등이다.

이여지는 복음주의자의 응답율이 높은 질문은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 98%(65%),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98%(66%), 예수님의 재림 97%(62%), 삼위일체 96%(72%),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해야 하는지 알려줄 권위가 있다 94%(51%), 지옥의 존재 93%(56%), 성경의 정확무오함 91%(48%), 전통적인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죄 90%(51%), 낙태는 죄 88%(51%) 등으로 압도적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84%(56%)이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적인 결정에 관심이 없으시다 12%(25%),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의 비난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11%(40%), 성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 21%(38%)는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적인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침내 혼란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 42%(63%), 누구나 약간의 죄를 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46%(65%),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축복으로 참된 믿음을 보상 해 주실 것 39%(36%)라는 복음주의자들의 대답은 신앙의 혼란을 말해준다.

또 하나님은 창조 전에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39%(27%), 교회는 효과적이기를 원한다면 재미있는 예배를 제공해야 한다 26%(37%),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대체 할 수 있다 39%(58%)는 역시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적인 혼란을 보여준다. 또 기독교인들은 정치 문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에 대해 16%(24%)가 그렇다고 답했다.

美대선 앞서 '홀로서기' 띄우는 중국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대선 국면에서 연일 '홀로서기'를 강조하고 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고 중국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일 사설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미국의 전략적 약의와 광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의 평화 공존은 순종과 관용으로는 이를 수 없다"며 "우리는 무적의 세력이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미국이 중국과의 평화 경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중 교착 국면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기술 자립, 안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군사력 증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선거는 중국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중국인들은 미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네티즌은 트럼프 대통령을 '환쟁귀(중국 건설을 돕는다는 뜻) 동지'라고 불렀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오히려 중국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미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 환쟁귀를 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으로 적진 괴위층에 집합한 스파이"라는 설명이 뜬다. 중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한다는 주장은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미국의 압박이 아니었다면 중국 스스로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는 무력감도 담겨 있다. 그러니 이제는 미국 변수에 휘둘리지 말자는 얘기가.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9. 장 봉(1877-1955)

장 봉(張鵬)은 1877년 9월 15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출생했다. 그는 대한제국에서 내부주사와 강원도 사무관을 역임했다가 한일병탄이 되던 1910년에 사직하였다. 이듬해에 장로교인이 되었고, 1916년에 전도사로 활동했다. 1919년 4월에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의정원 의원과 의장으로 활동하던 때 상해 한인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피터 장으로 프레지던트 태프트 기선을 타고 46세 때인 1923년 12월 15일에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했다.

힐로한인기독교회 목사

장 봉 목사는 김성기 목사와 김치현과 함께 마우이 섬 파이아 한인기독교회 대표로 1926년 1월 4일부터 10일 까지의 한인선교부 연회에 참석했다. 그는 그해 한인선교부 건의조사위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한인선교부 이사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해 전도부장이기도 하였다. 그해 그의 부인 그레이스 장과 자녀인 헬렌, 피터 그리고 아이샤이 상하이에서 하와이로 이동했다. 193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장 봉 목사는 그의 부인과 함께 하와이 섬 호놀카이지(Honokaa)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장 봉 목사는 1931년에 힐로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였다. 그해 본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잘 깨달아 어려운 때에 열심히 연보하여" 4,500달러를 주고 30년 된 건물을 구매하여 예배당으로 개조했다. 본 건물의 주소는 우루라니 길 213번지였다.

그해 부활주일인 1934년 4월 1일이었는데 그날 오전 5시 30분에 힐로의 각국 교회 교우 700여 명이 할나우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앞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는 예대로 오전 8시 30분에 소년회가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한 후 9시 30분부터 주일학교 공과공부를 하였을 때 교사들은 자기의 돈으로 준비한 과자를 아동들에게 나누었다. 10시부터 부활 주일예배를 드렸다. 아동 셋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청년 열 명이 입교식에 참여했다. 그날 오후 7시 30분에는 힐로 각

국 교회 교인들이 백인예배당에서 부활절연합 저녁예배를 드렸으며, 교인들은 부활의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 예배당을 구매한 후 3년이 되던 1934년에 빚이 1,000달러가량 남았으나 그동안 본 교회 교인들의 헌신을 가뭇할 수 있다. 이렇듯 본 교회의 청년회, 찬양대, 주일학교는 이전 보다 발전하였다.



장 봉

그해 6월 9일 아침 7시에 힐로를 방문한 박동완 목사를 맞았다. 장 봉 목사가 박동완 목사를 모시고 자동차로 예배당에 갔다가 잠시 쉬 후 근방 교우를 심방하였을 때 박동완 목사가 보기에는 생활상태가 5년 전보다 훨씬 윤택하게 보였다. 이튿날 주일예배에 교우들이 많이 모였고 또 찬양대의 청

아하고 유창한 찬송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 박동완 목사의 설교 제목은 '자기의 피로 값 주고 얻은 교회'였고 본문은 사도행전 20:28이었다. 장 봉 목사가 박동완 목사를 모시고 11일에는 학갈나우 상동에서 12일에는 옥갈나와 파월노와 호노카를 심방하였다.

그해 7월에 한인기독교회가 다시 출간되었다. 이에 힐로한인기독교회 직원들이 "축, 교회보 속간"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장 봉 목사 목사가 쓴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게재한 글이다. "우리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며 또 알파오시요 오메가이신고로 유시유종하시나 우리 신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나 변하기도 자주하고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일도 많음으로 우리 교회의 유일한 교회보가 4, 5년 성상을 정간이 되어 교회의 소식이 컴컴한 속에서 지

내었더니 다행히 금년 정월에 우리 교회의 평신도 대표회가 일어서 교회보를 다시 발간하게 되니 본 교회의 직원 일등은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간단한 축사를 보내어 인하여 바라는 우리 교회보는 지면마다 줄줄이 우리 주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 채우게 되어서 모든 신도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나팔과 같이 되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남침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항상 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되기를 축사의 요지로 삼습니다."

1934년에 장 봉 목사는 하와이 섬을 순행 전도했다. 고나 구역 동포녀들의 소학교 졸업 축하식에 초청을 받아 그해 8월 22일에 교회 지방에서 축연에 늦게 참석하였다. 그 밤에 예배를 드리고 졸업생들에게 권면했다. 다음 날 홀루루와 가일루아에 거주하는 동포를 심방하고 교회를 돌아왔다. 다음 날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가일루아 해변에 와서 낚시를 하였다고 한다. 25일부터 매일 밤을 이용하여 전도하였는데 지리상 현역으로 동포가 많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재미있게 지냈다. 그곳에서 장수영과 아내 정인숙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28일에는 김원근과 함께 캡렌룩 지방에 거주하던 김순성의 가정에서 투숙하고 29일 주일아침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에서 노석봉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김기두와 흥기서를 원입교인으로 세웠다. 그날 예배 후 그곳 형제자매의 뜻을 따라 평신도회를 조직하였다. 회장에 김순성이, 서기에 노석봉이 피선되어 회장이 개회하고 임원을

않았다. 둘째, 신자가 다른 신을 들은 간음하는 것과 같음으로 허락지 아니하였다. 셋째, 우상도 허다하니 다 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김이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혹사라도 큰 물건이든지 적은 물건으로 우상을 만들어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께 적대되는 일을 엄금함이 합당하다.

힐로교회 안에 있는 보영국어학교는 1934년 가을에 학부형회를 열고 교장 겸 재무로 김흥부로, 교사는 이수영으로 선정하였고, 학교가 발전되고 규모도 커져가며 학도들이 증가하여 40여 명이였다.

그해 추수감사절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남녀 교우 100여 명이 모여 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며 순서를 은혜롭게 진행했다. 찬양대가 추수찬



힐로교회(1938년)

미를 하였고, 각 임원이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번제로 드렸고, 장 봉 목사 사가 △1년 동안 세계에 전경 공황이 완화된 지남 △미국 안에 재정 공황이 완화된 지남 △하와이에는 아무 천재나 지진이 없었 △힐로교회에 구제를 갚아서 집이 가볍게 된 △교회 청년들 다수가 입교함 그리고 △교회의 임원이 피선됨을 감사했다. 그리고 김응섭, 김흥복, 김승률, 박자도 형제와 김순남, 김중애 자매와 김성만 청년이 감사담을 나누었다. 예배를 마친 후

금하였고, 외국 사람들도 90여 달러를 헌금하였으며, 캔디와 실과를 보낸 것이 4,500달러가 되었다.

박동완 목사는 1935년 1월에 발간한 한인기독교회보에서 "힐로교회는 장봉 목사 목사의 주께 대한 충성과 일에 대한 성의로 말미암아 일반 교우로 더불어 교회 토지 값을 한 3,000달러나 갚게 되었으며, 외국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동정에 깊이 치하하는바 또한 교우들의 성의에 감복하며 또는 청년들이 교회에 접근하여 활동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썼다.

1938년 3월 15일에 교인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다. 그해에는 본 교회 재적이 206명이었고 유아 세례자는 480명이였다. 작년 교회가 쓴 경비는 1,194달러 80센트였다. 주일학교 교장은 김민아였으며, 주일학교 학생 50명을 지도했다. 국어학교도 있었다. 학생은 31명이었고 1년 전 사용경비는 1,956달러 28센트였다. 그리고 교회 기지는 7,500달러에 해당했다.

1940년에는 힐로 한인기독교회에 19명의 임원이 있었다. 신도수는 185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65명이였다. 청년면려회에는 35명, 소년면려회에는 30명이 참석했다. 국어학교에는



장 봉 목사 목사 묘비(호놀룰루 하와이)

38명의 학생이 있었다. 재정은 1,273달러였고, 토지와 건물 값은 7,500달러였다.

호놀룰루교회 김형식 목사가 1940년 1월에 사임서를 낸 후 김장순 목사가 부임하던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장 봉 목사가 설교목사로 활동하였다. 그해 8월 4일 주일에 장봉 목사는 로마서 10장 15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교회보를 이용하자는 요지로 설교를 마쳤는데 교회보에는 '날마다 입을 성경 장절'이 있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에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한국주일공과'가 실렸는데 이를 통해 집에서 성경공부가 가능했다.

1940년 7월에 한인기독교회보가 속간되면서 전도와 교인들의 성경 지식 확장과 청년들의 국어 성경 공부 등의 목적이 다졌다. 장 봉 목사가 이의 주필 겸 편집인이었다. 1953년 호놀룰루 전화번호부에는 장 봉 목사가 호놀룰루한인기교우회 목사였는데 2년 후인 1955년 8월 2일에 호놀룰루에서 78세로 소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1926년 한인선교부 대표로 도미... 힐로한인기독교회 담임사역 한인기독교회보 주필로 전도와 성경지식, 청년성경공부 확대

선정하였는데 부사에 김순성, 재무에 박봉남, 탁사에 김원근이 뽑혔다. 그날 오후에 김순성과 김원근과 함께 호놀나우로 가서 그곳 장성욱의 가정에서 밤에 예배를 드렸다.

30일에 김순성과 교사로 돌아와서 김원근 가정에서 묵고, 31일에 김일만의 차로 와미아, 호놀카, 파월로 등에 거주하는 동포를 심방하고 옥갈나에 가서 그날 밤에 예배드린 후 교회를 조직하고 부사에 백윤영과 흥경오를 그리고 탁사에 이용선을 선정하였다.

1934년 10월에 발간된 한인기독교회보는 장 봉 목사의 설교가 실려 있다. 출애굽기 20:3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제목은 "첫째 계명"이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 된다. 이 중에 첫째 계명은 계명 중의 첫째 계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첫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허락지

교우들이 가지고 온 식물과 실과를 나누었고 감사절 연보는 8달러였다.

그해 12월에 평신도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김민아, 서기에 박세별이 선임되었다. 교회 임원으로는 전도사에 김흥복과 김중애가 선정되었고, 부사에 최하림, 집사에 김성기, 김정수, 탁사에 이수영과 김베드로가 뽑혔다.

그해 청년과 아동들이 교회 직원들과 같이 성찬 축하식을 수 사 동안 준비했다. 성찬절 밤에 교우들과 힐로 구역 안에 있는 각 교회의 교우들과 아동 등 400여 명이 하일리 홈에 모여 김민아의 사회로 순서를 재미있게 진행했다. 아동의 연극은 영적인 의미에 전도 목적도 있었고, 영어와 한국어로 하여 3시간 이상 계속되었으나 교인들이 재미있게 여겨 피곤한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외국 사람도 참석하였는데 내년에 오려나와 작년에 못 왔음을 후회하였다. 이날 80여 달러를 헌

교우들이 가지고 온 식물과 실과를 나누었고 감사절 연보는 8달러였다.

그해 12월에 평신도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김민아, 서기에 박세별이 선임되었다. 교회 임원으로는 전도사에 김흥복과 김중애가 선정되었고, 부사에 최하림, 집사에 김성기, 김정수, 탁사에 이수영과 김베드로가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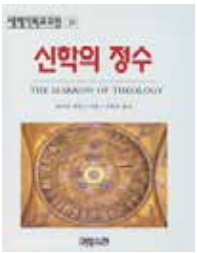
그해 청년과 아동들이 교회 직원들과 같이 성찬 축하식을 수 사 동안 준비했다. 성찬절 밤에 교우들과 힐로 구역 안에 있는 각 교회의 교우들과 아동 등 400여 명이 하일리 홈에 모여 김민아의 사회로 순서를 재미있게 진행했다. 아동의 연극은 영적인 의미에 전도 목적도 있었고, 영어와 한국어로 하여 3시간 이상 계속되었으나 교인들이 재미있게 여겨 피곤한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외국 사람도 참석하였는데 내년에 오려나와 작년에 못 왔음을 후회하였다. 이날 80여 달러를 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크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 Tel: (718) 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 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 637-147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Fax: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col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30 수요일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 화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학교: 오후 8:00 금요일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 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후 1:50 주일 3부 오후 1:50 청년예배 오후 3: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시 목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2)



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끝까지 견고한 믿음과 승리의 소망을 놓지 않았다.

죽기 직전 그는 뉴잉글랜드에 이민을 간 친구, 존 윈스롭(John Winthrop, 1588-1649)과 함께 하고자 했다. 에임스는 뉴잉글랜드의 신학사와 지성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거기에 가지는 못하고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매사추세츠, 살렘의 청교도 정착지로 이민을 갔다. 그의 아내는 에임스의 장서들을 가져갔고 이 책들은 하버드 대학의 최초 도서관의 토대가 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그의 저술을 종종 에임스의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초기 미국의 신학과 지성사에 있어서 윌리엄 에임스는 그의 신앙사상과 작품들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앙사상과 작품을 남겼다.

4. 프라네커 대학 (University of Franeker, Netherlands)에서의 실천 강조

프라네커대학에서 11년 동안 재직하면서, 그는 프라네커대학을 청교도화 하는데 힘쓴 '박식한 박사(Learned Doctor)'로 명성을 가졌다. 에임스는 프라네커대학이 교리 면에서는 정통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실천면에서는 대다수 교수와 학생들이 충분히 개혁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믿음은 성경에 합당한 기독교적 실행을 실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교수들은 에임스의 사상이 지나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지의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보았다. 이때 그는 두 편의 걸작을 썼는데, “신학의 정수”와 “양심론”이다. 그는 그의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신학 체계를 통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배운 라무스주의의 철학과 방법을 통합시켰다.

5. 에임스의 가르침과 생애

라무스주의란 16세기 프랑스의 개혁과 철학자 페트루스 라무스(Pierre de la Ramee, 혹은 Petrus Ramus, 1515-1572)가 전개한 철학이다. 라무스는 삶과 생각, 삶과 행함, 그리고 종교적인 삶에서, 신학과 윤리학 사이의 괴리를 규정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인위적인 껍데기를 비판하며 교정하려고 하였다. 에임스는 이 위그노교도(Huguenot, 프랑스의 칼빈주의의 기독교인)인 라무스의 사

해했다. 소수의 학자들은 에임스가 일반적으로 지성(intellectualism)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개혁과 정통주의의 길에서 벗어난 의지중심주의자(voluntarism, 主意主義, 혹은 주의주의자,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의 교리에 있어서 지성보다 의지나 의지력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사상)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 개혁과 신학의 범주 안에서 에임스는 기독교관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력이 있으며, 마음으로부터 야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을 낳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을 탐독할 때, 우리는 그가 개혁과 언약 신학의 완전한 체계를 세운 최초의 신학자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632년 에임스는 친구 휴

“신학의 정수” 청교도적 형태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교본 신학과 윤리학-경건의 삶 살도록 하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

그래서 그는 ‘하우스칼리지’를 개설하고 그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강의와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을 재구성하였다.

학장으로서 에임스는 경건을 강조하고, 주일성수를 역설하고, 성탄절과 부활절 휴가를 줄이고, 학생들을 위한 훈련을 강화시켰다. 에임스의 청교도적 개혁은 ‘1620년대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는 프라네커대학에서 재직하는 동안 계속되는 강의와 부지런한 저작 활동을 통해 알미니안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신학과 윤리학에 있었는데, 그는 이 두 학문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

상을 자신의 작품 속에 융합시켜, 신학과 윤리학을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적이고 언약적인 삶의 프로그램 속으로 융합시켰다. 이런 에임스에게 배우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에임스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요한네스 콕세이우스(Johannes Cocceius, 1603-1669)였는데 훗날 그는 에임스를 능가하는 언약 신학의 대가가 되었다. 그러나 에임스는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더 깊고 진일보된 개혁을 성취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다. 더구나 요한네스 마코비우스(Johannes Maccovius, 1588-1644)가 주도하는 일단의 교수들은 에임스의 노력을 고의로 방

피터 목사로부터 로테르담(Rotterdam)의 영국인 회중교회에서 공동목사로 함께 사역하자는 초청을 받아들였다. 그가 그 초청에 끌렸던 것은 거듭난 신자들의 순결 교육에 힘쓰는 독립적, 언약 중심적 회중에 대한 친구의 목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에임스는 청교도 진영 안팎에서 이런 회중교회 원리들을 계속 펼쳐왔다. 1633년 여름 로테르담 남쪽을 향하여 여행하던 그해 가을에 마스강의 둑이 터졌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집이 물에 잠긴 후 병에 걸렸다. 그는 명성과 갈등, 첫 번째 부인의 사망, 재정적인 불안정, 영국 당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방해 등을 겪으며 마침, 친구 휴 피터의 팔에 안겨 1633년 5

기는 했지만 그 책에 담긴 주된 사상은 그보다 훨씬 일찍 세상에 나왔다. 그가 1619-1622년 라이든에서 가정교사로 학생들에게 했던 신학 강의를 다듬어졌고, 그것들은 먼저 프라네커대학을 통해 단편적으로 라틴어(1623)로 발표되었다. 그로부터 4년 후 프라네커대학의 학문적 환경 속에서 재정적 안정을 찾게 된 후에 그는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완성시켰고, 오늘날 그를 가장 잘 기억하게 만든 작품이 되었다. 일반 성도들과 신학을 위해 유용한 개론서로 쓰인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학계와 교회의 인정과 감재를 받은 뿐만 아니라 다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영어판은 1642년에 최초로 출판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교제 그리고 재혼

이혼 후 한 2년 지나 사춘기의 자녀 둘을 데리고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어울렸던 시기는 길게 잡아 두어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은 마치 엄마를 어떻게 괴롭혀야 할지 고민하며 행동하는 것 같았고 남편과의 적응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0여년의 폭풍이 지나 애들은 그러저러 집을 떠났고 남편과는 ‘그렇거나...’하며 지냅니다. 오늘 모처럼 조용한 장소를 찾아 나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성경 속 성공적 재혼, 롯과 보아스의 예 참고

혼인에 대한 성경구절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전7:1-2)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바울이, 특별한 사명이나 독신의 은사가 없을 경우 결혼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두 남녀가 기쁨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림이 결혼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의 깨어짐을 겪어야 하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혼을 통해 인정과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재혼인 만큼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단단히 하는 것으로,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란 스스로에게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의 고통과 이혼의 상처로 성격이 변해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의 쓴 뿌리가 새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중에는 우선으로 새사람과의 관계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며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결국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사람은 결코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 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자녀인 경우 적지 않은 상처를 지닌 문제아의 자녀일 수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이의 자녀이니 감당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콩쥐팥쥐, 신데렐라 등의 고전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속의 계모들이 악연일 수도 있겠지만 재혼이라는 환경이 그런 편협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또한, 성장기의 자녀와 함께 재혼에 들어가는 경우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를 짚어봐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일 경우 그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애기해주고, 사춘기의 경우, 예민한 가운데 있을 자녀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될 사람이 의붓 자녀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의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혼자들은 아픔 속에 하나님을 배척했을 수도 있지만 온전히 붙잡았을 경우 긴장감 속에 영적투사로 살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기 전 여유로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주의할 점을 든다면 우리의 삶속에 물질이 가지는 비율이 큰 만큼 교제할 때 서로의 물질관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이미 재혼한 사람들을 만나 다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날 가장 중요한 재혼 전 고려사항은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니고 홀로서기가 돼 있는 상황, 곧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결정인지 짚어보는 것입니다.

(12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인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명절)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명절)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명절) 주일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교회: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c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영어찬양(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2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교인양성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화-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명절)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c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8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 협동목사 상임사역: (월-금) 오전 9:45(분당) 사역대상: 2. 교회 관심도 여망성리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할말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재기초교: 3655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후 1:30(명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3100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명절) 주일영양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저녁 8:00 목요예배: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n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분)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익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일: “이성인이 되어라”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95-0009 Fax: (323)69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미국 역사에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미네소타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7년 4월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미네소타주를 습격하여 농작물이 전멸할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때 주지사 필스버리(Pillsbury)씨는 모든 주민에게 4월 27일을 "감사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농작물은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우리에겐 건강한 몸이 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미네소타주의 모든 교회는 문을 열고 감사예배를 드렸고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온 들판을 가득 메우고 하늘을 새까맣게 덮

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 과학자들이 메뚜기 떼가 전멸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다방면으로 연구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시편 50:23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21-22에는 "여호와 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 할찌

로다"고 했습니다. 감사제는 감사의 제사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갈 때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28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23:4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으나 지나보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욥기 23:10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게 닥쳐진 이해 못할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 줄 믿고 우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제입니다. 인도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수년간 인도어로 번역한 성경원고를 집에 두고 잠시 외출한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강아지가 뛰어다니다가 촛불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불이 붙었습니다. 수년간 고생한 원고가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년간 번역작업을 해서 더욱 훌륭한 인도어성경이 출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감사를 드림으로 모든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은 가장 많은 확진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생존을 위한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기 위해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극한 염병에서 건지시고 새 사냥꾼의 울음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강아지가 뛰어다니다가 촛불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불이 붙었습니다. 수년간 고생한 원고가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년간 번역작업을 해서 더욱 훌륭한 인도어성경이 출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감사를 드림으로 모든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 그들이 부른 찬송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찬송의 추세가 벌어졌습니까. 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에 복병을 두사 그들이 서로 치게 함으로 그들이 한명도 피하지 못하고 들판에 엎드려졌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감사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 축복의 손이 역사합니다. 이사야 43:21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함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욕과 같이 성숙한 사역이 되어 하나님께 복 받고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songpak@hotmail.com



공개포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포럼

11월 17일 오전 10시 새생명비전교회, 온라인 병행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공개포럼이 오는 11월 17일(화) 오전 10시부터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월 27일 오전 11시 포럼개최 장소인 새생명비전교회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이상명 미주장신대총장, 민중기 총현선교회 목사 등 포럼 준비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 목사가 기도하고 송 목사가 이번 포럼 개최 이유와 의의를 설명했다. 송정명 목사는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교계는 더욱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상명 총장님과 고민하다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포럼을 열게 됐다"고 말했으며, 진유철 목사는 "이번 포럼이 한인교회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며 소망과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기획한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상이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이러한 변화가 5-10년 단축됐다"며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감소, 교인들

의 고령화와 교회의 재정 감소, 2세 신앙교육의 실패 등 한인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을 공론화하고 현상목회의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12명의 강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LA카운티의 상황에 따라 현장과 병행해 진행된다. 포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새생명비전교회로 접속하면 된다. 또 유튜브에서 '새생명비전교회' 혹은 'New Life Vision Church'를 입력하면 공개포럼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개회예배를 드리고 10시30분부터 본격적인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은 △민중기 목사(총현선교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사회윤리적 책임이 무엇 인지를 먼저 살피면서 시작된다. 그 후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이민목회: 아름다운 교회의 팬데믹 극복 사례'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 '팬데믹의 역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탐욕바이러스에 물든 세상 속 하나님나라 운동' △인공지능 과학자로 알

려진 사무엘 김 박사(울렛시그니처 선임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미래 사회: 두려움 넘어 공동체 세우기' 순으로 강의한다. 점심식사 후에는 한국의 세움교회 정요석 목사가 영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예배: 주일 성수와 주일 공예배'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이어진다. 이후 △이상훈 총장(ANEMI성대학교)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선교: 팬데믹 시대의 선교적 함의를 위한 사역 패러다임' △박동식 교수(미주장로회신학대학)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존재 이유: 나는 어디 서나 예배한다' △김현경 교수(월드미션대학교)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코로나블루: 위기에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목' △박성호 목사(ANC온누리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신앙교육: 언택트와 인택트의 듀얼 교육패러다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영성: 소박함의 영성' △정성욱 박사(덴버신학교 아시아사역처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학: 그 정체성과 방향성 재고(교회론과 종말론의 맥락에서)' △이종찬 대표(J&B 컨설턴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쉼터 역할: 일상의 선교사 되기' 등으로 진행된다. 송정명 목사는 "포럼을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포럼이 직면한 현실을 공론화하고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기감미주자치연회 감독 이취임감사예배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취임 임승호 감독, 이임 은희곤 감독

기감 미주자치연회 감독 이취임 감사예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미주자치연회는 감독 이취임 감사예배를 11월 1일 오후 4시 남가주주빌라벨비아교회(담임 임승호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감사예배는 취임하는 제4대 임승호 감독이 시무하는 남가주 풀러턴에 위치한 남가주빌라벨비아교회에서 코비드19로 제한된 인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예배로 드려졌으며 이임하는 은희곤 감독이 시무하는 뉴욕의 참사랑교회, 한국, 캐나다, 남미에 온라인으로 생방송됐다. 임승호 감독은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모든 연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힘든 이민목회 현실 속에 팬데믹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회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 감독은 "우리가 함께 세워나

갈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회, 연회원들이 행복한 연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는 연회"라며 "연회원들의 영성회복과 복음을 전하는 목회사역을 지원하는 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소통이 되고 투명하며 형평성이 있고 공정한 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연회 연회로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연회원들의 영성회복과 목회, 그리고 선교를 지원하는데 힘을 쏟겠다. 그래서 우리연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 감리회와 한국개신교회 개혁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희곤 감독은 "지난 2년간 감독의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감사드리며 교회와 가족에게 감사하다"며 "신임 임승호 감독이 감독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연회원들이 협력해 기도도 도와 아름답게 바톤을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미주자치

연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연회들 중 가장 모범적인 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형 상임총무 진행으로 열린 이취임 예식은 허장 총무가 감독으로 취임하는 임승호 목사를 소개했으며 영상으로 박효성 감독(제32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전명구 감독회장(제33회 총회)이 임명찬 취임축하를 했다. 그리고 은희곤 감독이 직무인계를 했으며 이철 감독회장(제34회 총회)이 감독인계를 선포했다. 이어 김홍훈 감독(제16대 서울연회) 이임찬하사, 은희곤 감독 이임사, 전용재 감독회장(제32회 총회) 편문사, 임승호 감독 취임사, 김우선 선가사 축가,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 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와 류재덕 목사(UMC 한인총회장, 연세신학동문대교) 축사, 공로패 증정, 취임패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취임예식은 이철 감독 회장 축대로 마쳤다. 한편 이취임예식이 열리기 전 열린 감사예배는 신광섭 목사(남가주서지방 감리사) 사회로 감리회신앙고백 교육, 정인호 목사(남가주동지방 감리사) 기도, 한경진 집사(포인트로바 나사렛대학교 교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이철 감독회장이 '이사람 모세는'(민12:1-3)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설교를 했다. (박준호 기자)



2020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설교 페스티벌

대상 조재현, 최우수상 강훈 전도사

제5회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설교 페스티벌

제5회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설교 페스티벌이 '시련과 변혁기의 신앙적 자서전' 주제로 지난 10월 24일 오전 9시부터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설교페스티벌

영역의 대상은 조재현 전도사(미주장신대)가 차지했다. 한기원 교수(에반젤리야대학)의 기도로 시작한 설교페스티벌은 강훈 전도사(국제개혁대학교), 서민선 전도사(미성대학교), 조재현 전도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 신지혜 전도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 김진호 전도사(월드미션대학교), 조유구 전도사(베데스다대학교), 노스데반 전도사(에벤겔리아복음대학교), 김선미 전도사(헨리아펠렐리신학대학) 등 8명이 참가해 정해진 12분 동안 설교를 했다. 이날 심사는 심사위원 9명과 청중평가단 18명이 맡았는데 심사위원장 신선복 부총장(월드미션대학교)은 4가지 심사 기준, 즉 전달력과 열정, 정확한 본문주해, 설교 구성과 시간, 콘텍스트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남가주 단체나 각 교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12면으로 계속)

동양선교회 재정비리 의혹 제기

전수조사위 결성 LA경찰국에 수사요청도

동양선교회(OMC)의 일부 교인들이 김지훈 담임목사의 재정 운용 문제 의혹을 제기하며 사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회 측은 분란을 일으키려는 일부 인사들이 억측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지훈 담임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 현황 조사를 위한 전수조사위원회가 지난해의 재정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목회활동비가 과다 지출되고 당회 의결절차 없이 무단 인출된 금액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LA경찰국(LAPD)에까지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가 하면 구체적 해명 없었을 경우 담임목사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김지훈 담임목사와 해명을 요구하는 전수조사위원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김 목사가 조사 결과를 두고 지난 9월 재정부장(이성기 장

로)을 해임하고, 임시 재정담당자(김순신 장로)를 임명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또 문제가 제기된 지난해 재정담당자(김광찬 집사)를 재정부 임시 차장으로 다시 임명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은 "목사가 당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교회 행정을 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훈 담임목사는 "작년에 교회재정문제가 발생해 3주간 4명의 재정 감사 전문 CPA에게 감사를 받게 됐다"며 "감사결과 시스템오류로 인해 나온 것이며 저와는 무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문제는 교회 어카운트에 20만불이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라며 "이에 대해 작년 11월에 열린 공동총회에서 재정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고 전수조사팀이 구성됐다"며 "조사결과 발표

절차는 당회보고, CPA검토, 재직회에서 소명, 그리고 공동총회에서 전교인들에게 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당회에서 결의했는데 재정부장 이성기 장로가 전수조사 결과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게 됐고 결국 이 장로의 재정부장 사역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고 재정부장직 해임을 시키게 됐다. 그것에 불만을 품은 이 장로와 일부 교인들이 OMC재정문제를 담임목사의 잘못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김광찬 재정담당 집사는 "작년 공동총회에서 전수조사팀이 2주 정도면 재정문제에 대한 결과를 밝혀낼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보고를 차일피일 미루게 돼 지난 6월 특별감사를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해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에 당회에 보고되지 않고 담임목사도 모르는 어카운트 개설돼 145,000달러가, 고인동선 목사 장학계좌에 7만 달러가 각각 입금돼 있었으며 특정 목사에게 당회결의 없이 3,800달러가 지급됐으며, (10면으로 계속)

교계 게시판

청교도 미국이주 400주년 기념 온라인 부흥회

청교도 미국이주 400주년 기념 미주한인교회 연합 청교도 신앙과 감사회복을 위한 영적대각성 온라인 부흥회가 오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열린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이며 청교도400주년 준비위원회(대표 한기홍 목사)와 자마(대표 강순영 목사)가 공동주관, 각 도시 교회와 미주성시화운동 주최로 열린다. 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허연행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연합감리교회), 양준길 목사(뉴저지필그립교회), 이재호 목사(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이은상 목사(달라스 세미한교회), 강민수 목사(시카고 레이크뷰연합교회), 김준근 교수(자마 설립자), 위성교 목사(북가주 뉴라이프교회),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문의: (310)995-3936

KAPC 청교도 이민 400주년기념 웨비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희 목사)가 주최하는 2020년 청교도 이민 400주년기념 웨비나가 11월 9일(월)과 10일(화), "미국 청교도 개혁신앙의 이민 목회사역 적용"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동부시간 오후 8시, 서부시간 오후 5시에 개최되는 웨비나 강사는 9일 조영천 목사(아틀란타세교회 담임,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꿈꾸던 교회"), 10일 김형의 목사(전남광주 베살롬교회 담임, "청교도의 유산과 21세기의 목회적 적용: 설교를 중심으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https://forms.gle/T9rm3bEeqf2aSBQY8>

▲문의: (760)220-3263 김성일 목사, 카카오톡 jesusmind

뉴저지한인목사회 제 11회기 시무예배

뉴저지한인목사회 제 1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0일(화) 오후 6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945-1313

줌(Zoom) 청교도 세미나 ABC

뉴저지 교계 연합 줌(Zoom) 청교도 세미나 ABC가 11월 8일(주일)과 15일(주일) 오후 7시(동부시간)에 열린다. 강사는 오덕교 교수로 8일에는 "청교도와 미국, 청교도와 성경", 15일에는 "청교도와 회심, 훈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한다. 오덕교 교수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와 총장,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교수로 섬기고 있다. 줌 회의 참가는 us02web.zoom.us/j/81618207267이나 816 1820 7267로 참가하면 된다. Better Together Prayer Movement(뉴저지사모회, 허그미션, 러브뉴저지, 뉴저지연합기도, GUM선교회)가 주관하고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가 후원한다.

▲문의: 816 1820 7267

씨존 스마트폰 무료강좌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C-Zone)은 스마트폰 강좌(97기)를 11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90분 강의한다. 강사는 씨존 대표 문석진 목사이며 강의 내용은 △난만 모르는 카톡 활용법 △유용한 스마트폰 꿀팁 △개별 질문 및 답변 등을 강의한다. 참가대상은 스마트폰 1년 이상 사용한 자로서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 등 안드로이드폰 소지자. 사전등록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며 선착순 5명.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CBSN)을 선교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CBSN사무실 204-39 45th Rd. #2FL, Bayside, NY 11361. 한편 스마트폰을 구입한지 3개월 미만의 초보반이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등의 고급반과 아이폰 반 등은 예약 후 개인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718)414-4848

뉴욕가정상담소 제42기 봉사자 교육

뉴욕가정상담소 제42기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5주 과정을 마친 후 수료증 수여식과 함께 뉴욕가정상담소의 핫라인 봉사자로, 주말과 상담소 운영시간 이후의 시간에 걸려오는 핫라인상담 전화상담 및 신속한 피해자 서비스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재교육도 가능하다.

▲문의: (718)460-3801 ext.12

무료성인초구교실

카이로스문화스포츠선교회(대표 김인식 목사, 이사장 양은식 목사)가 무료성인초구교실을 연다.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전반부 기초체력 증진, 후반부 축구 기본배우기로 진행하며 대상은 성인 남녀 모두 참석 가능하다. 연습장은 뉴욕 플러싱 51가에 소재한 코스모스 사커 필드.

▲문의: (917)593-9346

사랑한인교회 사랑나눔행사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 2801 W. Temple St., LA)는 Covid-19로 인해 어려워진 한인커뮤니티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나눔행사를 실시한다. 일정은 오는 1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쌀 1포, 은나노 마스크(한국제), 라면, 순세정제, 통조림, 1회용 장갑, 가정용 응급키트 등을 선착순 150명에게 나눠준다. 배부방법은 당일 본 교회 주차장에서 트렁크에 넣어준다.

▲문의: yoon.lavina@gmail.com

동계 크리스찬 신인문인상 공모

한미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최순길 목사)는 1년 사계절인 춘, 하, 추, 동 신인상을 공모한다. 응모부문은 △시 5편 △시조 5편 △수필 3편 △칼럼 3편 △에세이 3편 △단편소설 2편 등이다. 응모자격은 △간절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자(만약 이단이나 성경에 위배된 사람으로 확인되면 당선되더라도 취소되며,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한다)이며 미주 거주 한인 기독교인으로 내용은 신앙적인 것이어야 하며 글을 쓰게 된 이유와 배경 부연설명, 그리고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신의 신앙배경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본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작품 응모분야와 제목을 기재해 이메일(kacla07102020@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응모마감은 오는 12월 31일. 발표는 2021년 1월 중 개별통보하며 당선작은 소정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문의: (213)422-8916

부회장 경선 이재덕, 마바울 목사

뉴욕목사회정부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

뉴욕한인목사회가 제4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10월 29일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등록자는 회장 후보에 현 부회장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부회장 후보로는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와 마바울 목사(퀸스성령강림교회)가 등록했다.

뉴욕목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① 목사 안수 10년 이상 된 자 ② 뉴욕지구 거주 만 5년 이상 된 자 ③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 역임한 자 ④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인자)가

없는 자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11월 4일(수) 서류심사 및 후보확정 발표를 하고, 6일(금)에는 후보자 정견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선거관리위원장 정순원 목사는 "선거관리법에 따라 상대 비방 등은 철저히 조치하겠지만, 접대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선거운동 지침을 소개했다. 선거운동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한편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는 11월 16일(월) 오전 10시 뉴욕 호신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축제의 달인 예수님을 따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가 28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30분 뉴욕 기쁨과 영광교회(전희수 권캐더린 목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회장 권캐더린 목사는 "열정과 헌신, 지혜로 좋은 조직력을 갖고 사역을 감당할 때 날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사무총장 바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유상열 목사(삼일교문), 특송 김사라 목사 원혜림 권사, 설교 양민석 목사(직전 뉴욕교육협회장), 합심기도, 축도 라홍재 목사(뉴욕제자교회 담임) 순서로 진행됐다.

이틀 전인 26일 뉴욕교협 정기총회가 열려 이날 전임회장으로 설교를 맡게 된 양민석 목사는 "빈들에서의 축제"(막 6:3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아대책이 WC(with corona) 시대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느꼈다"며 "귀한 사역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예수님은 축제의 달인이다. 공생애 동안 혼인 잔치의 포도주부터 병 치유 등 계속 축제의 장을 여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하며 축복을 일으키는 율리는 첫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둘째, 내어놓는 행동 셋째, 합리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석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할 때 좋은 결과(열매)가 있으며, 은혜 받은 헌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조직/소그룹을 구성해서 효율성을 높이며, 마지막으로 절대감사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회의는 회장 권캐더린 목사 개회기도 후 바이스라엘 목사가 사역보고를 했으며 폐회기도는 이재덕 목사가 맡았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현재 106명의 아동을 결연하고 있다. 후원 아동 선교국은 콜롬비아(김해정 선교사), 페루(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순 박운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기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아동후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아동 1명당 한 달 후원비는 30달러로, 선교국을 지정할 수 있다(웹사이트 참조: breadngospel.org).

한편 동 기구가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아동 후원자의 밤은 팬데믹으로 '2020 아동후원자의 밤'로 정해 11월 월례회와 함께 25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에베레설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린다.

▲연락처: (646)247-8258 권캐더린 목사, (917)667-8555 바이스라엘 목사

(유원정 기자)

유태웅 목사 새 찬양곡 발표

음원출시 앞서 라이브 쇼케이스 콘서트

라이프라인미션(Life Line Mission) 대표 유태웅 목사가 11월 1일 오후 4시30분 뉴욕 가나안임성교회에서 라이브 쇼케이스 콘서트를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유태웅 목사가 새롭게 작사 작곡한 찬양곡을 음원 출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찬양을 들려주기 위해 소수의 참여단을 초청한 것.

콘서트는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총 24명의 정중 참여단과 7명의 출연진 그리고 6명의 스태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콘서트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됐는데 초반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온라인 방영이 되지 못했다.

콘서트는 유태웅 목사와 송정훈 진행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을 후 김정열 목사(뉴욕영안교회 담임)의 기도 후 진행됐다.

라이브 연주에는 기타 유태웅 목사, 피아노 윤석중, 신서사이저 김희수, 드럼 한명재, 베이스기타 소재운, 6가지 관악기 유진웅 교수가 연주했다.

이날 연주곡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꿈들이 △아침의 노래 △기억 속에서 △갈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손길 △외쳐! 찬양하라 △예수 오트 △시제! 일어나야 해 △행복한 사람 등 10곡.

콘서트는 이지용 목사(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유태웅 목사는 팬데믹 이전 뉴욕에서 정기 화요찬양모임을 진행해온 바 있다.

(유원정 기자)



퀸스장로교회가 종교개혁 5대 강령 찬양예배를 드리고 있다.

구원의 여정... "오직 성경으로"

퀸스장로교회, 종교개혁 5대 강령 찬양예배

퀸스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종교개혁 503주년 주간에 맞아 10월 28일 저녁예배를 종교개혁 5가지 강령이 들어있는 찬양예배로 드렸다.

메시지와 찬양을 조화시킨 이 예배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으며 찬양은 합창이 아닌 연주를 위주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마치 1인극처럼 온몸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종교개혁과 찬송"이라는 주제로 최원일 장로가 진행을 맡아 종교개혁의 주역인 마틴 루터의 삶에서부터 종교개혁 5가지 강령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된 메시지를 전했다.

5대 강령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으로 각 파트마다 메시지와 함께 오해해 집사의 바이올린 연주, 송소영 집사의 오르간 연주, 김정운 권사의 피아노 연주 등이 이어졌다.

김성국 목사는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을 본문으로 마틴 루터가 구원을 찾아 나서고 마침내 성경(롬1:17)에서 그것을 찾는 과정을 열정적으로 전했다.

마지막에 김성국 목사는 성경을 들고 "오직 성경이다. 오직 구원의 길은 성경에 있다. 교훈도 책망도 의도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 오직 성경이다"라고 마무리했다.

마지막은 참석성도들이 모두 일어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여"를 찬양했으며, 다민족 회중의 목사들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하나씩 말하며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팬데믹 가운데서도 다민족회중을 위한 건축을 진행 중인 퀸스장로교회는 지난 10월 매 토요일 건축바자회를 열어 총 5만5천782달러의 수익금을 올렸다.

(정리: 유원정 기자)

팬데믹 이기고 온라인으로 열었다!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 제11회 아가페열방찬양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주최한 제 11회 아가페 열방찬양제가 11월 1일 주일 오후 5시30분에 열렸다. 찬양제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팬데믹 때문에 올해는 찬양제를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신 것 같다"라며 "11회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을 여기 모시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처럼 회중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가 있다"고 말했다.

제11회 아가페 열방찬양제

에는 교회 EM인 아가페글로벌처치 제이 김과 제니 부부전도사, 스티브 장 전도사가 중심이 돼 찬양을 인도했다. 특히 Jay & Janet 찬양팀은 미동부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팀이다.

지난 10여년간 열정적으로 찬양제를 준비해온 디렉터 이창호 집사는 "그동안 100여 찬양팀과 찬양사역자들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면으로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사드린다. 힘내고 내년에는 코로나19를 이기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날을 고대해본다"고 인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동양선교회 재정비리 의혹 제기

(9면에서 계속)

당회에 위반되는 지출 5천달러, 그리고 인사복지규정에 위반되는 비용이 지출이 됐다. 이에 지난 6월28일 특별감사팀에서 이성이 장로의 재정부장으로서 부적합하며 재정부장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김 목사는 "감사결과 교회재정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OMC 회계시스템이 오래됐고 지속적인 임플금으로 인해 생겨난 오류"라며 "교회에서 사용하는 쿼북 프로그램을 새 버전으로 교체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로 전 문성이 있는 회계담당자로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전수조사위원회의 재정내역 보고서가 당회와 공동 총회에서 결의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출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김지훈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과다지출 주장도 사용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나온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12일 이성이 장로의 재정부장 해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절차에 따르지 않은 보고서를 유교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았으며 당회결의 없이 3부 찬양팀 무급휴직통보, 1, 2부 오르간반주자, 지휘자 사레비 미지급, 부목사 하프타임 전환, CPA 검토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료 유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담임목사의 영주권 스폰서 중단 및 사임압력행사까지 있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LA경찰국(LAPD)에 공식 수사 요청은 거부됐다고 말했다.

김지훈 목사는 "교회내 문제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언론에까지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OMC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가 주최한 제11회 아가페열방찬양제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6)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식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존 나스(John Knox, 1513-1572)처럼 청교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특히 청교도들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으며 기도의 의무 실천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의무가 대요리문답 제 185문과 제186문에 잘 나타난다. 필자 역시 아내와 세 자녀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철저히 중시했다.

현재 COVID19 상황 속에서 청교도적 가정예배의 활성화, 즉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경적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3)교리 공부(Doctrine Study) “청교도들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성경묵상에 최우선권을 두었다. 심지어 사춘기 이전

의 청교도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신령하게 저술된 권위 있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독실한 영국 국교도들도 성경에 대한 동일한 신앙들을 고백했으나 모든 행동과 태도를 성경의 페이지들에 따라 맞추는 청교도의 집념에는 비해 매우 약했다.

청교도들은 성경 읽기 묵상과 별도로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중시했다. 이러한 교리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컸다. 실제로 키티민스터의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경우 ‘어머니의 교리문답’(Mother’s Catechism)이라는 항목의 문장을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약 100페이지 분량의 내용들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와 성경읽기를 중시하며,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책임을 행할 것이며, 그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권하고 명하며, 그들 앞에 거룩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많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교리학습서는 엄마와 어린아이가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이야기체로 되어있는데 창조와 성경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등을 망라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예배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가 주중에 자기 고구의 가정들을 심방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교리를 올바르게 배우고 있는지 문답으로 확인했다. 만약 자녀가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면 그 부모들이 주일예배 때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kimjoyh@gmail.com

3)성경적 예배(Biblical Worship) 회복(回復)과 부흥(復興)을 위한 가정(家庭)의 중요성 (2)가정예배(Home Worship)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5-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의 가정예배에 대한 항목에도 이와 같이 써 있다. “이는 모든 가정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청교도 가정에서 여러분은 온 가족이 이른 새벽과 해질녘에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매일을 시작하고 끝맺어야 했다.

가정예배에 대한 강조는 청교도 생활을 구별하는 요소가 되었고, 모든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열고 마무리 짓는 새로운 가정문화를 창출해 내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피며 돌보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한다. 육체적인 처벌도 적절한 것이며 성경적으로 그들의 품행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부모의 감정폭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육해야 한다고 믿었다. 현세의 출세나 성공보다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가정을 중시했던 사상으로 되돌아가 성경적 가정교육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교도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의 가르침대로 가정에서 위계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가정에서의 질서는 엄격하여, 남편은 가정에서 ‘왕이요, 교사요, 목사요, 재판관’과 같이 행하였고, 모든 식구들은 그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하였다.

알렌 카튼(Allen Carden)은 “가정은 이 중대한 노력에 불가결한 동반자였다. 교회는 자주 회중들에게 가정의 신앙의 무를 행하라고 권하고 일깨웠다. 매일 아침과 저녁, 독실한 청교도 가정은 성경봉독, 기도, 그리고 시편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배를 인도했다. 자녀들을 포함하는 가족들도 이 가정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기도 했다.”

청교도들은 모든 가정을 종교적 공동체, 즉 ‘가정을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 동시에 하나의 작은 교회’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남편을 목사로 아내를 전도사로 하는

터(John Carter)와 같은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일상화하였다. 예를 들어 뉴잉글랜드 청교도인 나다니엘 바나디스턴은 매일 식사를 마친 뒤 아침과 저녁에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 시편찬송을 부르는 가정예배를 계속함으로 가정을 영적인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었다.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랄 수 있

도록 시편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배가 있었으며,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때때로 자녀들을 포함하는 가족들은 예배활동의 일부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인도하기도 했다. 청교도들은 주일은 물론 일주일 내내 개인기도와 가족기도로 충만했다. 청교도 가정은 매일 모여 예배를 드렸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엄격한 가정질서, 남편은 ‘왕, 교사, 목사, 재판관’ 으로 자녀교육 1일 2회 가정예배...개인적 성경읽기와 성경묵상에 최우선권 뒤

작은 교회라고 주장했다. 남편의 의무는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고 주일날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가정에서 그날 온종일 성별하도록 감독하고, 자녀에게 교리문답을 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은 후에 가족 전체의 시험을 보아 얼마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하면 이헤시키고, 매일 가정예배를 이상적으로 하루에 두 번 인도하고, 언제나 모든 문제에서 근심한 모범이 되는 것이다.

나다니엘 바나디스턴(Nathaniel Barnadiston)과 존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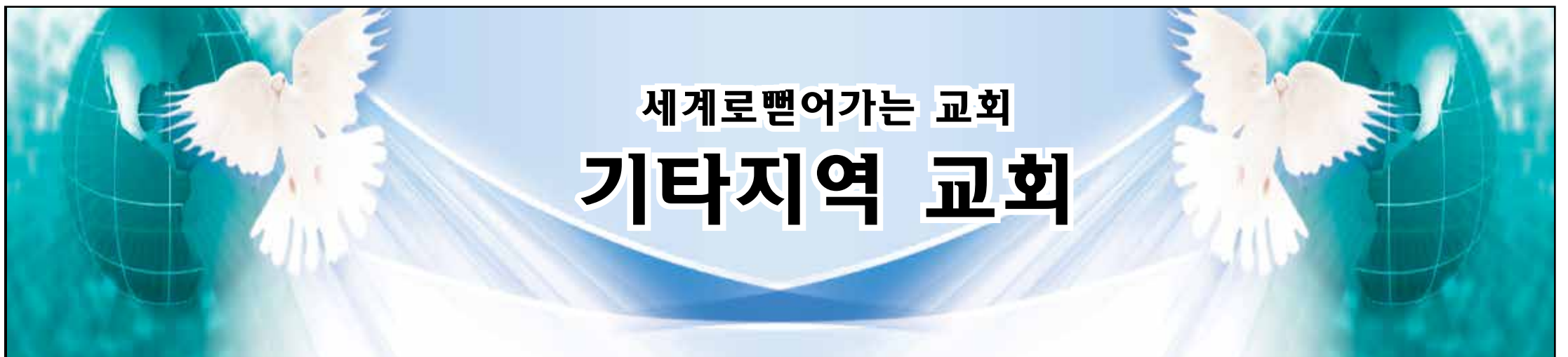
터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가정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가정예배는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은 드렸다.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문맹자들을 돕기 위하여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 장로들이 대신 인도해 주기도 하였다.

청교도들에게 가정예배의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다. 기도, 성경봉독, 찬송이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 단순한 형태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매일 아침과 저녁, 성경봉독과 기

Baxter, 1615-1691)는 하루에 두 번 이 가정예배가 드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시대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처럼, 가정들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지난밤에 휴식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오늘을 위한 가르침과 보호와 공급하심과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다...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듯 하루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 날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밤사이 안

의 9-12세의 어린이들도 성경을 읽는 데 상당한 시간을 사용했으며, 많은 청교도들이 자신의 영적 발달을 기록하고, 또한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는 일지를 수시로 기록했다. 청교도들은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생활에서 성경에 대한 의존과 경의를 증명했다”(알렌 카튼, “청교도정신”, p303).

청교도들은 성경적으로 기초된 설교들에 대한 집요성과 개인적이며 규칙적인 성경읽기를 강조했다. 영국과 미국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화):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화):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화):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전양): 오후 1:45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령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 유년, 유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jjk.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감 이철 감독회장 체제 출범

총회 열고 감독 당선자들과 취임식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10월 29일 제34회 총회를 열고 이철 감독회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교단 개혁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연회원들이 모인 서울 꽃재교회에 본부를 둔 기감은 7개 거점 교회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화상으로 회무를 진행했다. 총회에서는 500명의 임법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임법위원들은 내년 9월 열리는 임법의회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는다. 2년마다 열리는 임법의 회에서는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제·개정한다.

회무를 마친 뒤 흩어져 있던 감독회장·감독 당선자들이 꽃재교회로 모여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해 이광호(서울) 김정석(서울남) 정영수(중부) 하근

수(경기) 최종호(중앙) 양명환(동부) 안정균(충북) 강관중(남부) 유명권(충청) 황병원(삼남연회) 박용호(호남특별) 감독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승호 미주연회 감독은 화상으로 취임식에 참여했다.

기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교단의 회복에 맞춰졌다. 기감은 2008년 말부터 감독회장 전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이 기감을 대표하는 혼란이 이어져 왔다.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제대로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은 신경하 목사가 유일하다. 감독회장 자격을 두고 10여년간 진행된 소송만 100여건에 달한다.

이 감독회장의 취임사에서도 당선자의 기쁨보다는 교단 개혁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 감독회장은 “여러 어려움이 빠진 감리회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조인을 많이 듣고 기도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야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을 잃지 않고 넓고 긴 안목으로 감리회를 섬기는 감독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혁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기도하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감독회장과 감독들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30일 서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기감 은퇴여교역자 안식관 ‘엘가원’을 방문한다. 현장 방문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 여장로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청년회연합회 등 평신도 단체의 장들도 동행한다.

처음 진행한 온라인 총회는 기술적인 문제로 아쉬움을 남겼다. 지방의 교회에서 발언한 총대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울링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됐다. 발언권도 서울연회원들에게 집중됐다. 한 총대는 “총회 본부에 모여있는 서울연회원들에게만 발언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꽃재교회에 있는 회원들의 발언권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동성에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 운동본부’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세기총, 천만인서명 운동본부 발대식 가져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10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컨벤션 호텔에서 ‘동성애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교계 및 정계 인사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지도목사 정성진 목사 사회로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박위근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드렸다.

조일래 목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사55:6-9)이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계 안에서도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일래 목사는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그 말도 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이 반대 운동이 승리를 거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 민족에 큰 축복이 되길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2부 발대식에서 서명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하게

되는 김희선 장로는 인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진행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섭리를 위해하는 이 법이 다시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는 거론될 수 없도록 천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영화감독 윤학렬 감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담은 영화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으며 장현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 정책위원장을 맡아 대정부와의 창구를 맡게 된다.

또 정일웅 박사(제4대 총신대학교 총장)가 학술위원장으로, 황우여 박사(전 교육부장관, 전 사회부총리)가 법률위원장을 맡아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신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들을 조명한다.

한편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발대식 이후 홈페이지(<http://www.noqueer.com/>)와 각 교단과 단체 등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서명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세기총)

또 “지난달 치러진 제105총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과 지위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강도권 허락’임을 확인했다”며 “여성 사역자들이 자신이 갖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복음사역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회회를 위한 교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소강석 총회장의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한 결단과 다짐을 지지한다”며 “한국교회를 희망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았지만 이제 천국에 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는 A씨를 복속된 후 양강도 해산 도보 위부 구류장에서 다시 만났다. 당시 A씨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척추가 구부러진 채 쪼그려 앉아있었다고 한다. 그는 특정 날짜에 형을 선고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한국미라이니셔티브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종교적 행위 혐의를 받고 중국에서 강제 복속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북한 당국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로 적시한 내용 중 중국 내 종교 활동(110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조사를 드러낸 중국 내 북한 구금시설도 10개나 됐다.

“한교총 중심 하나 되는데 적극 협조”

기침 110차 정기총회, 박문수 총회장 선출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27일 1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문수 대전 디딤돌교회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기침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 총회 본부를 포함한 전국 26개 지역에서 총회를 분산 개최했다. 등록 대의원 877명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했다.

총회는 개회예배와 임원 선거, 총회규약 개정 중심으로 치러졌다. 신임 총회장 선거에선 박 목사가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됐다. 부총회장에는 김인환 안성 함께하는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박 신임 총회장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최선을 다해 교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총회장은 1년 임기 동안 다음세대 육성, 기관 재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다음세대를 육성하지 않으면 10년 뒤 우리 교단의 미래도 없다. 다음세대 육성위원회를 만들어 교육 전문 사역자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단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을 행정 지원하고, 구시대적인 총회규약도 21세기에 맞게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 교단과 연합도 강조했다. 박 총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상황”이라며 “타 교단 및 연합기관들과 협력해 안티 기독교인도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개척·미자립교회도 지원한다. 박 총회장은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전체의 60-70% 정도”라며 “이들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와 교육을 할 수 있도

록 장비와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침은 이날 총회에서 비대면 시대에 맞게 총회규약도 개정했다. 천재지변(재해·전염병 등)으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하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날짜와 진행방법도 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탈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핵심 사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대면으로 총회가 열리면서 시간과 공간 제약이 컸다는 게 이유였다.

박 총회장은 “지난 6월 열린 임원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고 회의록에도 기록돼 있어 총회 안전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한국교회총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 한다. 우리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침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교단 소속 전국 교회에 공문을 보내 공론화할 계획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다른 역차별 낳을 것”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국회 앞서 철회추구집회 열어

경기도 교계 등 500여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대표회장 최승근 목사)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철회추구집회’를 열었다.

도민연합 측은 기자회견을 겸한 이날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파괴적인 차별금지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민연합 박종호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 및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작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특권층을 창설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연합 측은 차별금지법안에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현재의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과 해당 법을 악용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제정을 반대했다. 무엇보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명목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여성 화장실 출입이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가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에 있어도 심각한 폐해가 일어날 수

‘동성애 옹호’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동반연 철회 촉구 “방송계 차금법 역할”

KBS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성 간 성행위자와 동성 커플을 차별 방지 대상에 포함하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방송계의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합을 옹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반연은 “KBS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인데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

결합을 비정상적으로 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이 동성애를 미화·옹호했을 때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데 동성결합조차 옹호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는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하며, 에이즈 등 특정 질환, 성매매, 마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도 민연합 측은 한국과 비슷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도민연합 측은 “모든 국민이 차별금지법의 악한 실체를 깨닫게 될 때까지 차별금지법 바로잡기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들이 ‘포괄적(평등법)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라고 써진 손 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날 집회에 참가한 20여명의 도민연합 측 관계자들은 각자의 손에 ‘포괄적(평등법) 차별금지법 결사반대’라고 써진 손 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도민연합 측은 국회 앞 1차 집회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근의 더불어민주당 사무소 이동해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은 그 적절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송에서 ‘비정상적 또는 부정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고 정한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 동성가족을 포함시켰다.

김원평 동반연 실행위원장은 “동성애는 상담을 통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동성 커플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동성애 옹호·조장세력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막히자 지자체 조례, 방송 가이드라인, 대학 인권현장 제정 등 우회 전략을 구사해 잘못된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정상화” “여성사역자 사역확대”

예장합동 교갱협 현안 관련 입장 밝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교단 내 목회자 모임인 교회갱신협의회(대표회장 김찬곤 목사)가 27일 성명을 내고 ‘총신대 정상화’ ‘여성사역자의 사역영역 확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교단적 역할’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갱협은 “총신대가 지난 수년간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사

학법을 악용한 일부 집단으로 인해 ‘관선이사 파송’이란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었는데 최근 정상화 과정에서 또다시 총신 사유화를 획책하려는 시도가 나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회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해 관선이사 체제가 종식되고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 좋으면 총살 운 나쁘면 수용소”

한국미라이니셔티브, 북한내 종교자유침해실태 발표

A씨는 중국 장춘 철북감옥에서 심각한 고문을 당했다.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였다. 그는 재판 동반자가 있는 통나무의 처에 앉아 얼굴 앞에 쇠 가름대를 대고 있어야 했다. 죄수들은 그를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고, 그 상태로 머리에 종이 봉지를 씌워 백산 감옥으로 이송했다. 그는 철사에 발목이 묶인 채 한 달 동안 그곳에 구금됐다.

비영리 인권단체 한국미라이니셔티브(대표 마이클 글렌디닝)가 지난 27일 국제종교자유

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에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9년부터 7개월 간 진행된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117건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들의 인터뷰로 확인된 피해자만 273명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215명)가 기독교인이었다.

A씨 얘기도 여기 수록됐다. A씨 얘기를 전한 응답자는 “A씨가 자신은 하나님이 다른 계 획이 있어서 복속될 수도 있겠다”고 했다”며 “33년 밖에 못

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오벳이 탄생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온 축복일 것입니다. 룻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삶의 고뇌가 재혼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한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1:16).
hyojungyoo2@yahoo.com

한부모가정사역

(8면에서 계속)

재혼 후의 주의할 사항이 많겠지만 몇 가지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결혼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아 자주 입에 올림으로써 상대방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만약 상대방이 그럴 경우 무조건 막지만 말고 기회를 주는 아량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라도 전배우자와 비교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좋은 점을 세워가면서 긍정적 분위기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 자녀들의 전반적 생활이나 교육에 관여하여 갈등의 요소를 만들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성공적 재혼의 예를 든다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모압여인, 룻과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와 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 다윗과 예수

대상 조재현, 최우수상 강호 전도사

(9면에서 계속)

대상(상금 2천 달러)은 조재현 전도사, 최우수상(상금 1천5백 달러)은 강호 전도사, 주해상(상금 1천2백 달러)은 노스데반 전도사, 전달상(상금 1천 달러)은 신지혜 전도사가 받았다. 나머지 4명은 일반 장학금상(상금 2백 달러)을 받았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월드미션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설교페스티벌에서 송정명 미주 성서화운동 공동대표회장은 “

설교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는 이유는 장차 이민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에게 설교문화를 정착시키고 설교의 현장을 만들어줌으로 좀 더 신실한 목회자와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설교대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의 사회, 경배와 찬양 하저혜 학우, 기도 한기원 교수(에반겔리아대학교), 대표 후원인사 송정명 목사, 설교 김지훈

목사(동양선교회), 축도 임성진 총장(월드미션대학교)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에서 김지훈 목사는 “오늘 설교페스티벌을 통해 목회자와 설교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설교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내일의 경건과 기도의 호흡이 흘러지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설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우울증과 영적 치유” (28)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기적적 과 근심

우울증을 겪는 많은 이들이 상처 받았지만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식이 흐려질 수 있다. 또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근심과 걱정하게 하는 영은 재앙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가운데는 자신을 격리시킴으로써 안정감을 갖는 이도 있다. 그들의 활동과 관계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무시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제는 성경을 더 읽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에도 힘써야 할 때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수

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기도: “예수님, 저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저를 근심과 두려움의 영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니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물질이나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오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어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해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기쁨과 평안이 되시오니, 저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2. 하나님 사랑하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막12:30-31).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람과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랑이 더욱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나 물질로 인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게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잠시 제게 맡긴 선물임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우울증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을

말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1:12-17). 예수님은 하나님이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를 구할 때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매일 30분씩 읽거나, 하나의 복음서를 30일 동안 소리를 내어 읽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님 경배: 일상 중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이것은 당신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시작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께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성장할 것이다. 교회 예배와 성경공부,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배워라.

기도: “주님, 저의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yonghui.mcdonald@gmail.com

치유능력 가지신 예수님과 관계는 치유과정에서 매우 중요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의지하고 도움 구할 때 영적능력 얻어

우리가 사람과 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사람이나 물건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만약 그렇다면, 속히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더욱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집중하는 방법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사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알기: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므로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도움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서론2: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1)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10:12,13).

제발 말씀 없이 일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사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지 않고 그저 일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 온 사람들, 세상 다른 것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맛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육부서와 기관 봉사 그리고 주차장 또는 주방 등에서 봉사에 헌신하고 열심을 냅니다. 정기적으로 단기선교도 가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빈자리를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신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신 17:18-20).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 유언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포



말씀 없이 사역하는 건 안 먹고 일만하는 것과 같아 반드시 패배 말씀은 생명,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5-9).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

합니다. (참조) 출15:25,26, 레 19:37, 20:8,22, 25:18, 26:3-46, 신4:1,2,40, 5:1,32,33, 6:1-3,24,25, 7:9-12, 8:1-20, 11:1,8,22,32, 12:28,32, 13:18, 15:4,5, 16:12, 26:16-19, 27:1-3,10,26, 28:1,15,45-48,58,62, 29:9,29, 30:1-20, 31:12, 32:46,47, 수22:5, 23:6, 대상28:7-9.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1:6-8).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범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왕상2:1-3). 아브라함과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왕 다윗은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하는 날이 되겠느냐(사58:3-5/참고, 수7:4-7).

그 외에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도 말씀으로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결국엔 나 드러내기의 일환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느9:29/행5:20/빌2:16/요일1:1). 둘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수9:1-15/마6:25-34). 셋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해야 합니다(수6:1-27/신1:36). 넷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수7:1-26). 다섯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시37:5/사26:3,4).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값이 너무 커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엔 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던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롬7:14-25). 무엇인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음을 발견하기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그리스도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요 15:1-15).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앞에 나간 죄인의 성화인 것입니다. 내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은혜를 받드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원한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신8:3, 32:46,47/마4:4).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두아디라교회에 주신 말씀(계4:18-29)찬177장

두아디라교회에 임하신 인자는 어떤 칭찬과 책망,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째, 그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19). 모든 것을 아시는 인자는 부흥하는 교회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는 거짓교훈에 미혹돼 타락했습니다(20). 기록 중심한 사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

는 일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고와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6-29).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이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화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계3:1-6)찬213장

단지 책망만 받은 사데교회는 어떤 경고를 받았습니까? 첫째, 일곱영과 일곱별을 불드신 인자로 나타났습니다(1). 성령과 교회의 목사를 주관하시는 인자는 교회의 약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회복의 주로서 임하셨습니다. 그 인자는 이날도 그런 분이 임하십니다. 둘째, 그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2). 모든 방면이 온전하지 못해도 가장 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심으로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소수의 거룩한 무리를 통해 인자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4-5). 인자의 손안의 위대한 역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무리라도 거룩을 구할 때 거룩한 주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기어코 이루십니다. 어두운 우리 시대에 거룩한 새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라.

수 빌라델비아교회에 보내는 말씀(계3:7-11) 찬241장

서머나교회처럼 빌라델비아교회가 받은 칭찬과 권고와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 순종에 신실했습니다(8). 겨자씨만한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을 화합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인자께서 불드신다면 작은 자일지라도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났습니다(9). 그의 신실함은 마침내 인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셋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습니다(10). 장차 일어날 환난의 날을 면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대로 모든 일에 행통하게 될 것입니다.

목 성전의 기둥이 되는 신자(계3:12-13)찬383장

빌라델비아교회가 받은 약속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교회를 집을 세우는 기둥처럼 교회를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견고해져 어떤 교훈의 풍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골2:7-8).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명예를 받습니다(12).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

진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명예가 따릅니다. 주께서 높이시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그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12). 하나님께 정적으로 헌신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갑시다.

금 인자의 치료 방법(계3:14-22)찬28장

라오디게아교회의 형편은 현대 신자가 가장 많이 당면하는 일입니다. 이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염려, 일락, 재리의 유혹으로 상처받는 우리는 어떻게 치료되니까?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합니다(18). 부요한 자로 착각한 그들은 진정 영적으로 공핍합니다. 이때 믿음을 회복함으로써만 영적 부요를 누리

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가리워야 합니다(18). 흰옷이란 거룩과 의를 가리키는 데 성경을 바로 깨달을 때 눈을 밝아져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합니다(18). 이 안약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진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토 요한이 본 천상의 구도(계4:1-3)찬40장

일곱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지상에서 영전을 행하는 교회가 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천상의 보좌로부터 나온 계시입니다. 인자는 그 천상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그는 구속의 마침을 위해 부단히 일하십니다(1).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자는 이 구속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십니다. 둘째, 인자는 성부의 사역을 신실한 중보자이십니다. 요한이 먼저 본 보좌에 계신 분은 삼위

일체의 중심이신 성부의 형상입니다. 그 보좌의 형상과 영광이 구속을 통해 나도록 인자는 교회 안에서 왕래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셋째, 성부의 성품이 그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엡3:18-19). 그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충만해지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7)



이희갑 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교수)

사회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들에게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미 지난 호에서 이야기 한 바 있지만 정작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저하와 기능결핍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래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혹은 Zoom등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시작된 이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특히 수 학에서의)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교육학자들이 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육은 사실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전 영역에서의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한다.

개념 없는 학부모들이야 자녀들이 다른 영역의 발달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학업 성적만 좋게 받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천만의 말씀! 정작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한 시름 놓은 그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해 보자. 귀하는 이전보다 더 심한 고독감,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조그만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별 의욕이 없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길을 가다 만난 흡리드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갑을 만지작거렸는데 지금은 냉담한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은가? 밤에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쉽게 잠을 잘 수 없어 뒤척이며 시간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잘못 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과도하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런 증상들이 사회적 정서적 정서들이 고갈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사회적 정서적 능력 다섯 가지

그러면 사회 정서적 영역이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이를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능력이다. 나의 강, 약점과 나의 성품,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를 잘 아는 것을 말한다.

요즘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비인지적(Non-cognitive) 요소의 중요성이다. 학생

비인지적 기능이 더 중요...사회 정서적 능력은 대인관계 경험 통해서만 습득 5가지: 자기이해력, 감정통제력, 인지적 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공적 책임감

순간에 예상치 못한 자녀들의 심각한 사회 정서적 부적응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어느 날 자녀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충동에 빠진다거나 혹은 약물중독 등 많은 사회 정서적 부적응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왜 그런가? 바로 사회 정서적 발달을 등한시한 결과이다.

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 정서적 기능의 발달이다.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네 가지 기능이 바로 의사소통, 협동, 비판적 시각, 그리고 창의성이다. 대부분이 바로 사회 정서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 정서적 기능은 책에서 암기하는 지식은 아니며 지적 기능이 높다고 해서 덩달아 성숙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달되어져가는 대인관계 기능이다. 때문에 코로나 정국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선생님을 또는 친구들과 만남이 어렵고 거의 혼자 지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잘 자라가는 만무하다. 이는 우리 자녀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이다.

들의 학업성적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학생들의 인지적(cognitive) 능력(예를 들면 지능지수, 시험성적, 학점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많은 연구 결과 바로 비인지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비인지적 요소란 학생 스스로 느끼는 자제, 태도, 가치관 등을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런 요소가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이끌 뿐 아니라 바로 이런 요소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짓고 있다. 자신감, 불굴의 정신, 포기하지 않은 자세, 자기 통제력, 용기 등이 바로 대표적인 비인지적 요소인데 이미 Angela Duckworth는 이를 Grit으로, Carol Dweck은 Growth Mindset이라고 규정짓는 바 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여도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자신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 비인지적 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 바로 가정이며 교회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오십견

-치과의사인 50대 중반의 안 모 씨는 약 한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또 오른쪽 팔을 올릴 수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옷을 갈아입기가 어려웠다. 아침마다 머리빗질을 할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 빗질을 해야 했다. 지난 일주일간은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거의 잘 수 없었고,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나 모트린을 사서 복용했지만 효과는 크게 없었다. 사우나나 마사지를 해보았지만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안 씨는 이리다가는 앞으로 어깨를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서 병원을 찾아왔다.

안 씨는 당뇨병을 10년 정도 앓았지만 식사 및 운동 조절과 약물치료를 잘 조절되고 있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도 없었다. 담배나 술은 당뇨병 진단 후에 끊었고, 일주일에 두 번은 집 근처 산을 찾아 등산하는 등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는 편이었다.

검진상 오른쪽 어깨를 올리는 데 심각한 제한이 있었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도 어깨를 올릴 수가 없었다. 어깨 부위에서 덩어리는 만져지지 않았고, 누를 때 통증이 유발되었다. 엑스선 검사는 정상이었다. 안 씨는 일단 오십견

(adhesive capsulitis)으로 진단을 받고, 어깨 관절 주사를 맞았다.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 방법을 교육받고 주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분간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했다.

주사와 물리치료 병행해야

오십견(五十肩)이란 글자 그대로 50대 이후에 자주 생기는 어깨관절이 굳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인구의 약 2-5%에서 일생에 한번쯤은 겪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어깨가 굳는다는 의미로 동결견(凍結肩, frozen shoulder)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에 많이 오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있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랫동안 웅크린 자세로 일하는 경우도 오십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관절 질환과 마찬가지로 6:4의 비율로 여성에게 더 흔하고, 당뇨병 환자에서 5배 정도 더 자주 발생한다.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환자가 겪는 고통이 몹시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치료를 시작한다. 치료는 물리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관절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치료가 빠르고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관절주사 후 물리치료와 소염제를 병행한다. 위와 같은 치료 후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다른 어깨 질환이 동반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383-9388

코로나(COVID-19) 세대를 위한 사회 정서적 교육의 중요성 (7)

(14면에서 계속)

자녀들이 실수를 해도 용납하고 재차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가정 혹은 교회의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게 되고 이를 밖으로 자신감 있게 펼쳐 나가게 되는 것이다.

사회 정서적 능력의 둘째 요소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적절히 규제하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이 결여되어있는 아이들은 어려움이나 힘든 순간이 오면 정서를 폭발시키든지, 자신을 도피시키든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사회 정서적 스킬은 스트레스가 와도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를 스스로 통제하여 어려움 중에 평안을 누리는 여유를 갖게 한다.

사회적 정서적 능력의 세 번째 요소는 인지적 조절이다.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계획을 잘 수립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간다. 그리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발휘하여 세워진 목표를 달성해낸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성숙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상대에 대한 공감능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을

유지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서적 능력은 각자가 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써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 불의에 과감히 대처하고 자기에 부여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게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게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사회 정서적 능력, 곧 자기 이해력,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 인지적 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공적 책임감 등은 책에서 배울 수 없고 원활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통찰할 때 습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스킬이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다가오는 세대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반드시 체득해야 되는 21세기 리더십 스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교회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사회 정서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 다음 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2가지를 명심하자. 관계성과 자기 정체성. 이를 위해 신뢰롭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와 적극 도와주자. 교회에서 이러한 스킬이 개발되도록 교회교육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까? 다음 호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hlee0414@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20.가정과 사탄의 공격

이 지구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도 파괴됩니다. 이같이 중요한 가정을 사탄이 가만 둘 리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원래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이루어 놓았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불행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로운 욕의 가정 이야말로 최대한으로 마귀에게 침범당한 대표적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훌륭한 성군 다윗의 가정에도 사탄이 침범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하므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비극과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상에 나타난 가정들을 볼 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하와 자신이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그 후 뱀은 하와로 하여금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정신을 차려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가도록 약한 사탄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한번 두번 빠지다 보면 신앙까지도 팔아버리고, 완전히 교회와 담을 쌓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멀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정과 교회는 하나, 사탄은 가장 연약한 자부터 공격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사실을 알고, 사탄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공격해 오고 있는지를 신령한 눈을 떠서 바라보고, 어떻게 그 공격을 막고,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 가정에서 먼저 연약한 자를 피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연약한 하위를 피어서 자기편으로 만들고, 그 남편 아담도 유혹하게 하여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든 것은 어떤 연약한 한 식구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을 먼저 유혹하기도 하고, 또는 아내나 자식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알아서 우리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믿음과 말씀 안에서 서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과일을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고 명령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며 빌써 유혹의 독소가 담겨진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하와는 "하나님이

을 듣고 배우면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래알 씹는 것같이 싫어지는 것은 이미 사탄이 쳐놓은 울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쁜 시간을 만들고 광케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는 것은 마귀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4. 가정 식구 간에 서로 핑계하고 책임전가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실 때, 그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있게 한 여자 때문에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와도 역시 "뱀이 나를 꼬므로 먹었나이다"하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단란하고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서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탄은 식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결국 불화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억울함이 다소 있더라도 서로 핑계를 대거나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잘못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팬데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8) **효사랑선교회** 회장 김영찬 목사

이민가정 자녀와 부모의 정체성 심어주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를 방문했다. 지난 2006년 6월 설립된 효사랑선교회는 시니어대학, 양로병원예배, 효사랑 그림, 글짓기 공모전 등의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효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놀워에 위치한 노인 센터 근방에 있는 미국교회(놀워침례교회)에서 파지티브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가 효사랑선교회를 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정체성 심기다. 부모님선교회(대표 주도진 목사)와 함께 동역하면서 노인들을 섬겨오던 그는 기도 중에 ‘효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이다.

“부모님선교회는 양로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에 입원중인 노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송구영신 때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왔었는데 주님께서 효를 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김 목사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기도와 동료 목사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한 뒤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했지만 시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사역이 펼쳐지는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셨을 정도니까요. 저를 상담해준 목사님도 사역을 해보라고 권면을 해주셨고요.”

그가 사역시작을 완전히 결정하게 된 것은 부모님선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였다. 보통 오전에는 가든그로브에 있는 양로병원에서 예배사역을 한 뒤 오후에는 LA 버질

에 위치한 양로병원으로 이동하여 예배사역을 해왔었다. 어느 날 오전사역만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마음으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5번 프리웨이 놀워에서 내려가던 중 꿈에서 봤던 건물과 똑같이 생긴 교회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확신을 갖게 됐으며, 교회를 찾아갔고 담임목사에게 사역허락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효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처음 사역은 제가 2004년 개척한 파지티브교회의 지역선교사역으로 했었어요. 그곳에서의 사역은 제가 은퇴하던 2011년까지 하게 됐고 은퇴 후 현재 위치한 부에

가 되는 교육을 받게 된다. 학업을 시작할 때마다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활기찬 학업에 임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니어 대학의 과목은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과 성실과 진실을 위한 신앙과목을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라며 “진실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신앙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로병원 섬김사역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양로병원에서 인생의 노후를 정리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정직한 믿음과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



김영찬 목사

효의 본을 보이면 가정행복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김 목사는 “LA 한인 타운 인근 노인 아파트에 혼자 살던 80대 한인 노인이 숨진 후 열흘이 상 방치돼 있다가 부패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었던 적이



부모님선교회와 노인사역...기도 중에 ‘효하라’ 음성 듣고 시작 시니어대학, 양로병원 예배, 효캠페인 전개, 효 글짓기그림대회

나팍으로 이사를 와 현재의 효사랑선교회는 이름으로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효사랑선교회의 사역은 △시니어대학 △양로병원 섬김사역 △효캠페인 △효사랑 글짓기 그림대회 등이다.

시니어대학은 2년제로 운영된다. 김 목사는 “시니어들의 남은 생애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시기”라며 “시니어대학에서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 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라는 확언으로 존경받는 부모

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사시도록 성경공부를 통해 믿음을 세워 드리라는 사역”이라며 “사역의 목적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드립니다.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서의 삶을 사시도록 말씀으로 교육해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양로병원 사역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효캠페인은 ‘효를 행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실천합시다.

있다. 그리고 신 모 할머니의 경우도 이웃 한인노인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가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예도 있다”라며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영양 결핍이 아니라 사랑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며 더욱이 내 부모님조차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관심 없이 살고 있다”라며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주변에 홀로 계신 할

머니는 다른 분이 아닌 곧 내 어머니이고 내 할머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새벽기도로 인사드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며 길러주시고 교육해주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섬김이 없는 효는 효가 아니고 부모 공경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며 “예수님은 효의 모범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아들이요 지상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자라날 때에 부모를 모시고 순종으로 효를 실천하셨고(눅2:51)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효를 실천하셨고(눅22:42)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까지 어머

랑 글짓기 그림대회는 대회 개최 한달 전 청소년들의 지원하게 되며 해마다 풍성한 작품이 발표되고 있다.

김영찬 목사는 “2013년부터 시작된 대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상반기에 개최해왔다”라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를 열지 못했지만 대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역의 변화는 시니어대학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모든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열렸던 효사랑 글짓기 그림대회도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시니어대학의 경우 비록 온라인으로 강의가 이뤄지지만 강의가 마친 후 노인학생들은 카톡을 통해 강의 잘 봤다, 고맙다, 강의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등 반응을 보인다고 표현하는 걸 잘못하는 분들이라 유튜브 댓글창에 글을 남기는 분들은 거의 안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인사를 받을 땐 감사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선교회의 모든 사역이 자비함으로 이뤄지기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영찬 목사는 “세대 간의 교육, 문화의 차이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돼 많은 가정들이 가슴 아프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 주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고,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한계에 머물렀다”라 언급하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건강한 이민 사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인 효사랑, 즉 성경적 효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회복으로 성경적 효의 가정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되는 일에 효사랑선교회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14)670-8004 (박준호 기자)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제35대 회장선거에 관한 공고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선거규정 제5조 “후보등록절차”와 제9조 “공고사항”에 의거하여 제35대 회장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35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인인민역사에 길이 남을 공명정대한 선거를 수행할것을 약속드립니다.

1. 투표일시(현장투표) : 2020년 12월12일(토), 오전9시-오후7시(9:00am-7:00pm)

2. 주요선거일정요약 :
- 유권자등록기간 : 2020년 11월4일(수)~12월2일(수), 약1개월
 - 후보자등록서류제출일 : 2020년 11월 4일(수) ~ 6일(금) (*COVID-19 예방, 선관위 방문자 시선역량 필수)
 - 후보자등록일 : 2020년 11월18일(수), 오전10시-오후5시
 - 우편투표용지 발송일 : 2020년 11월 23일(월)부터 ~
 - 선거일(투표일) : 2020년 12월12일(토), 오전 9시-오후 7시 마감

3. 투표참여방법 : “유권자등록을 하셔야만 우편투표 또는 현장투표가 가능합니다.”
- 우편투표 - 유권자등록을 하신분, 해당주소로 우편투표 발송
 - 현장투표 - 유권자등록을 하신분, 3곳의 현장투표소에서 현장투표
 - **장소-추우알림
 - 유권자등록방법 : 1)DMV온선면허증 2) DMV ID, 3)영사관 ID증 하나의 사본을 선관위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소정의 양식과 함께 제출, 또는 선관위 사무실 방문 대면등록(대리등록절대 안됨)

4. 입후보자 자격 (*선거관리규정 제4조 요약내용)
-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 및 한국의 관법규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 선고나 피선정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 2)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10년 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3)후보등록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 a)최근 10년내 본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 또는
 - b)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 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최근7년내 3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활동 한 자
 - c) 본회 관할지역인 LA카운티 내에서 한인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타 단체에서 임원, 이사, 고문 및 위원장등 어떠한 직책이라도 맡은 적이 없는 자.
 - 4)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헌적으로 회장 또는 임원인 경우, 후보등록 시작일 기준 15일 이전에 그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
 - 5) 성범죄(성폭행, 성추행등), 마약범죄,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윤리에 반하는 범죄경력자,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입자, 그리고 조직에 심각한 분란의 원인제공자 또는 법적소송의 원인제공자는 아니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LA한인회관내) Address : 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 전화 213-800-2824/이메일 election@kafila.org / 팩스 323-732-7009

6. 후보예정자의 기금모금행사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요약)
- 1) 후보 및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유로운 기금모금행사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서류제출일로부터 후보등록 시작 3일전까지로 한정한다.
 - 2) 후보등록 이후의 기금모금행사는 불법이며,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3) 기금모금 성격의 행사로 모금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후보 등록비 및 선거비용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체크에,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로 기재하여야하고, 메모란에 반드시 "지지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 4) 후원모금액은 개인및비즈니스 포함 17개당 최대\$1,500을 초과할 수 없다.
 - 5) 후원금모금행사에서의 후원은 모두 체크(check)로 받아야 하고, 선관위에서 정한 후원확인서(Donation Form)와 함께 받아야 한다. 후원행사가 종료되면 2일내에 선관위에서 정한 후원확인서와 해당기금을 한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